

인권정보자료실  
Me1.14



# 2005 여를 통일하자 인권캠페인

20050729\_31 경기도 서평택 아조밸리 유스호스텔

주최 \_ 2005 여를 통일하자 인권캠페인 공동준비단

단국대학교 동성여자모임 'Pink Triangle - 핑크 트라이앵글' / 동성여자인권연대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성소수자모임 '붉은이빨'  
 서울대학교 이반동아리 'QIS - 큐이오' / 성소수자인권상담센터  
 성신여자대학교 레조비언 커뮤니티 'LCIS / 연세대학교 'come together' - 컴투게더  
 중앙대학교 이반커뮤니티 'Rainbow Fish - 레인보우 피쉬'  
 한국남성동성예자 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한국외국어대학교 'Hulsanevan - 후산이반'  
 한국청소년 성소수자모임 'AnyFren - 에니프렌' / 한양대학교 '이반인양'

후원 \_ 이반시티 / 도모 / U bar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인권정보자료실  
Me1.14



## :: 내림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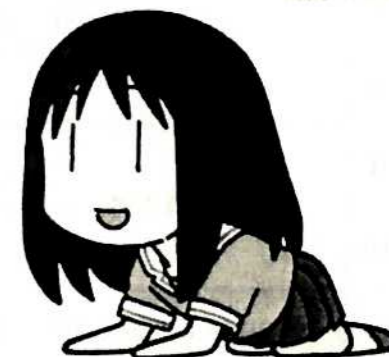
- >> 2005 여름 동성애자 인권캠프 일정
- >> 프로그램 소개
- >> 2005 여름 동성애자 인권캠프 공동준비단 소개
- >> 공동준비단 후기
- >> 강연 자료
  - \_ 전체강연 "우리에게 '가족'이란 무엇인가?"
  - \_ 선택강연 "청소년, 청소년 동성애자"  
"HIV/AIDS 동성애자는 과연 고위험군인가?"
- >> 조별선택토론 자료
  - \_ 동성애자 결혼과 입양
  - \_ 커밍아웃
  - \_ 동성애자 노동권
  - \_ 성폭력, 성희롱
  - \_ 성적 다양성 / 취향에 대한 차별
  - \_ 대중문화와 동성애자

본 자료집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웃팅 주의 !!

- >> 발행 : 2005 여름 동성애자 인권캠프 공동준비단
- >> 발행일 : 20050729
- >> 포스터 : 강태성
- >> 글 취합 및 구성 : 득 / 옥 / 물고기
- >> 편집 : 권 / 물고기

무더운 여름 고생하시는 인쇄노동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SCV-70



**:: 2005 여름 동성애자 인권캠프 일정**

	7월 29일	7월 30일	7월 31일
7			
8		아침식사	
9		춤 배우기	일어나기 씻기
10		인권감수성프로그램	정리
11			캠프 엔딩
12		점심식사	서울로 출발
1		골든벨 / 레크레이션	
2	출발		
3	도착 / 오프닝		
4	조별시간	전체강연	
5			
6	저녁식사	저녁식사	
7	Magic shop	조별선택토론	
8			
9	선택강연	촌극	
10			
11	안녕! 이반체스카?	뒷풀이	

**:: 프로그램 소개**

>> Magic shop

아용샘의 진행으로 가상현실 매직샵으로 함께 떠나보세요! 자신이 버리고 싶은 것들을 맘껏 버리며 새로운 자신과 만나는 기쁨이 함께 할 것입니다!

>> 선택강연

동인련 회원 시우, 다큐멘터리 '이반검열' 이영감독과 함께하는 '청소년, 청소년 동성애자' / HIV/AIDS 인권모임 나누리+ 호재, 변진옥씨와 함께하는 'HIV/AIDS, 동성애자는 과연 고위험군인가?' 위 두가지 주제중 한가지를 선택! 강연과 토론이 펼쳐집니다.!

>> 안녕! 이반체스카?

프란체스카, 두일, 권, 대주교, 큰 그리고 안성덕이 캠프 첫날밤을 방해하려 나타납니다~! 조용한 저택에서 펼쳐지는 스펙타클서스펜스수퍼 호러~! 안녕! 이반체스카?

>> 춤 배우기

우리 모두 보아가 되어 Boa 요~! 넘치는 힘이 느껴지는 moto를 배워봅시다~!

>> 인권감수성프로그램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과 함께하는 인권감수성프로그램! 인권에 민감한 우리들에게 보다 쉽고 재미나게 다가가는 프로그램입니다.

>> 골든벨 / 레크레이션

우리반 퀴즈와 함께하는 골든벨! 짝피구 / 고무줄 / 단체줄넘기를 즐겨보아요~!

>> 조별선택토론

동성애자 결혼과 입양 / 커밍아웃 / 동성애자 노동권 / 성폭력, 성희롱 / 성적 다양성, 취향에 대한 차별 / 대중문화와 동성애자 조별로 주제를 선택하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촌극으로 표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촌극

동성애자 촌극단 '건방진 이반씨!' 뒤집어지는 우리들의 끼를 느껴보아요~!



## :: 2005 여름 동성애자 인권캠프 공동준비단 소개

단국대 핑크 트라이앵글(Pink Triangle) 소개  
cafe.daum.net/DKLG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이반 모임 핑크 트라이앵글입니다.

학교 내 이반 학생들은 그들의 성적체성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그들과 같은 사람들을 공개적인 통로를 통해서 만나기 힘듭니다. 오히려 그들 자신의 성적체성을 숨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그런 점은 예외가 아닌데요. 저희 핑크트라이앵글은 학교 내 이반들이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탄생하였습니다.

핑크 트라이앵글은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래했습니다. 아우슈비츠에 강제로 수용된 집단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수천명의 동성애자들도 이 수용소로 끌려가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처형당했는데요. 나치는 수감된 다양한 집단에게 서로 다른 표식을 달게 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분홍색 삼각형을 달았습니다. 1970년대 동성애자 인권운동은 분홍색 삼각형을 뒤집어 자긍심의 상징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분홍색 삼각형은 동성애자의 자긍심을 나타내는 표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저희 모임도 동성애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2005년 3월 28일에 만들어진 저희 모임은 만들어지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정모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교류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하기 위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영화제나 세미나등을 통해서 동성애자가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을 돕고 학교 내 동성애자 아닌 사람에게도 동성애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한 활동을 할 것입니다.

또한 단국대학교 학교 내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와의 연대를 통해서 다른 학교와 정보를 교류하고 서로의 행사에 도움을 주며, 타 학교 학생들과의 교류에도 힘쓸 것입니다. 단국대학교의 동성애자들에게 답답한 동성애자들의 통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서울대학교 이반 모임 QIS입니다.

### # 서울대학교 이반 모임 - QIS

저희 동아리는 1995년 5월에 이반/동성애자 인권운동모임 '마음 001' 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99년에 정식동아리로 인정되어 한국 대학 이반단체 중 최초로 공식인준 단체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4년 3월 '마음 005' 는 서울대학교 이반 동아리 QIS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마음' 이란

이름은 이성애자와 동성애자가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QIS로 이름을 바꾸게 된 것은 이제 저희는 그 '같음' 너머로 이성애자와의 '차이' 를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성애자로 규정된 사회의 동일성을 넘어서 이제는 동성애자의 '차이가 있는 삶' 을 말하는 것입니다. QIS의 Queer가 상징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 QIS에서는요.

QIS에서는 매년 QFF란 이름으로 이반영화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이밖에도 세미나, 강연회는 물론이고, 언론 인터뷰와 인권캠프 참가등 다양한 대외 활동을 전개중입니다.

# QIS 십주년

큐이즈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영화제 및 10주년 기념행사가 있으니 많이들 참석 부탁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이반 모임 - QIS(Queer In SNU)

\*동아리방 : 학생회관 311-3호

\*대표메일 : [snumaum@empal.com](mailto:snumaum@empal.com)

\*공개홈페이지 : <http://www.snumaum.org>

## 한양대학교 '이반한양'

### 1. 서두

소개에 앞서, 이제 다섯번째를 맞이하는 동성애자 인권캠프를 위해 애쓰시는 많은 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동성애자로 살아가는 일이 많이 답답하고 힘들더라도 이러한 분들의 노력에 의해 우리의 삶의 문제와 사회적인 여러가지 억압들이 조금씩 실마리를 찾아가게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캠프는 어느덧 동성애자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나누고 동시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보석과 같은 소중한 자리임을 느낍니다. 이번 2005년 여름 동성애자 인권캠프 역시 소중한 자리가 될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 소중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반 한양을 소개하게 된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 2. 의의

이반 한양은 한양대학교의 동성애자 친목모임으로서 한양대학교 재학생 졸업생 대학원생 을 아우르는 모든 학내 동성애자에게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한양대학교의 구성원이 아니거나 동성애자가 아닌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즉 한양대학교학생이라는 정체성과 동성애자라는 정체성의 교집합인 셈인데요 가입에 있어서 특별한 지식이나 입장이 요구되지 않는 친목모임으로서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다양한 의견의 개진이 막힘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서로의 삶에 있어 생길수 있는 많은 문제를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임이기도 합니다.

포털사이트 다음에 카페를 개설하여 온라인 모임을 갖고 있으며 학내외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지면서 친목과 유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 3. 연혁, 구성 그리고 활동상황

이반한양의 첫걸음은 1999년 다음카페를 개설한 것을 그 시작으로 하였습니다. 이후 적절한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회원들의 가입으로 모임은 성장해 나갔으며 현재는 준회원 포함하여 약 100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한양대학교 유일의 이반모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반한양은 이후 다양한 외부 행사 인권활동에 참가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대학내의 이반모임이나 동아리가 문화제나 영화제 등등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대학간 문화 교류와 더불어 건강하고 유쾌한 이반 문화의 구성에 있어 일 주체로 설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한달에 한번의 정기 모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상시적인 온라인 모임, 그리고 학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정기/부정기적 오프라인 모임(점심모임등등)으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상하반기 MT, 그리고 다른 학교의 모임과 함께하는 활동들이 간헐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 4. 지향

한양대학교 이반모임인 '이반한양'은 설립시부터 친목단체로서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모임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허나 이것은 어떠한 입장과 생각이 전제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다양한 입장과 생각이 서로 막힘없이 오고갈수 있는 자유로움은 이반한양의 가장 큰 지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으로서 동시에 동성애자로서 나눌수 있는 어떠한 종류의 고민이나 이야기들이 자유롭게 녹아들수 있는 모임의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더욱 구체적이고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으로 구체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모임간의 공동활동이나 문화제의 주최, 또 인권행사의 참가를 통해서 더욱 모임의 결속과 의의를 다져갈 것입니다.

다시한번 이러한 소개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인권캠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다양성이 존중되고 동성애자라는 정체성이 부끄럽지 않은 사회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이반한양 운영자(ysjuns@hanmail.net)에게 연락주십시오

카페주소 : <http://cafe.daum.net/hy2ban>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중앙대학교 Rainbow Fish

Rainbow Fish는 중앙대학교 내의 이반들의 모임입니다. 이반이란 일반적인 성적 취향을 가진 자; 이성애자와는 다른 성적 취향을 가진 자를 일컫습니다. 이반은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의 일반 다수적이지 못한 모든 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가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반에 대해서 과격하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면 Rainbow Fish는 언제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반들은 여러 제약들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차별을 거부하고 동등해지기 위해 외롭게 싸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Rainbow Fish는 그런 이반들에게 편안하고 소중한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반들은 현실적인 것들과 자신의 정체성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의 밝힘을 원하지 않는 이반들에게는 개인 정보의 보안 문제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Rainbow Fish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규칙과 제한을 두었습니다. 의지와는 상관없이 현실적 필요에 의해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Rainbow Fish는 현재의 이르기까지의 자취가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인지도에 있어 조금은 낮게 여겨질 수도 있다라고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Rainbow Fish는 실제로 몇 가지 외부 활동을 시도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Rainbow Fish fest"는 가장 큰 규모였고, 성공적인 경험이었습니다. Rainbow Fish는 좀 더 열린 모임과 회원들 간의 communication의 깊어짐을 위해 여러가지 시도를 할 것입니다.

\*매달 세미나가 진행 중입니다. 10월 영화제가 진행 중에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cafe.daum.net/cauqueer>

##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단체 Anyfren

저희 Anyfren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스스로 만든 인권단체로 전신인 Any79에서 2005년 1월 새롭게 이름을 바꾸고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단체 중 가장 오래된 청소년 단체이며 회원 분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현재 8번째 대표들이 운영중이며, 2005년인 올해부터 연령제한을 만17세에서 만24세까지 늘리고 친목단체에서 인권단체로 단체의 성격을 바꾸었습니다.

저희 Anyfren은 청소년 성소수자면 누구나, 남녀 제한 없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싸이월드나 프리챌에 가입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Anyfren은 2005년 초 네이버에 새 동지를 틀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카페 주소는 <http://cafe.naver.com/anyfren.cafe>

8월 정모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



성신여대 최초의 이반모임 회장을 만나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다음((주)다음 커뮤니케이션)에 성신여대 이반모임(가칭)이라는 카페가 생겼다. 그 동안 성신안에서는 이렇다 할 동성애자 모임도 없었을 뿐 아니라 있었다 하더라도 매우 폐쇄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 일반학우들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은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모임 대상도 반드시 동성애자여야만 한다는 제한도 없는 등 개방적 활동으로 눈길을 끈다. 이에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카페 운영자를 만나 보았다.

-카페는 언제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나?

(2000년) 3월 중순, 내가 만든 것은 아니지만, 레즈비언 전문 사이트(www.tgnet.co.kr)에서 먼저 홍보가 되고 사람들이 좀 모이면서 모임을 만들게 되었다. 원래는 홈페이지를 만들 계획이었으나 기술적인 문제로 일단 카페를 먼저 만들게 된 것이다. 전에도 우리학교 이반들이 모임을 만들려는 시도가 몇 번 있었지만, 모이기가 힘들어서 좌절된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홍보가 잘 되어 만들기가 좀 더 쉬웠던 것 같다.

-성신 최초로 외부에 알려진 동성애자 모임을 갖는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없었나?

나도 개인적으로 부담감을 갖고 있지만, 회원들이 대부분 왜곡된 주변의 시각을 두려워해 자신의 정보가 드러나는 것을 꺼려하는 편이다. 하지만 인터넷을 잘 모르는 사람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카페만이 아닌 대자보 등으로 우리 모임을 홍보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현재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활동해왔는지 알고 싶다.

현재 회원 수는 약 38명 정도이며, 그 동안 여섯 번의 성공적인 정모를 가졌다. 또, 신입 회원이 생길 때마다 가능한 자주 번개 등을 통해서 친목을 다지고 있다. 아직 자리를 잡는 중이라 한번도 전원이 다 모인 적은 없지만, 지금은 꾸준히 회원들이 서로 만나서 친목을 다질 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앞으로는 어떻게 모임을 활성화시킬 계획인가?

MT등을 통해서 결속을 다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 단순히 친목만 다지는 것이 아니라, 영화나 문학등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로 동성애에 관한 세미나도 할 예정이다. 또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이반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우리의 존재를 알리고 그들의 왜곡된 생각이나 고정관념들을 바꾸고 싶다.

-한국의 동성애자 인권현실을 어떻게 생각하며,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미국에서는 동성애자들 끼리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곳이 있을 정도로 동성애자들이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또한 동성애자 행진의 날 등을 통해 동성애를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는 데 비해 한국의 현실은 매우 척박한 편이다. 하지만 대중매체의 시각도 나아지고 있는 편이고 동성애자 인권운동 단체도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 점 등을 볼 때,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성애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동성애자들간의 사랑에 대해 굉장한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본 적 있다. 하지만 동성애끼리의 사랑도 이성애자들의 사랑과 다르지 않다. 또한 동성애자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동성애의 존재를 인식하고 동성애를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사랑의 한 종류로서 인식했으면 좋겠다.

성신여대 인문대 신문사 사람살이 26호 中 (2000년)

친구사이 [www.chingusai.net](http://www.chingusai.net)

친구사이는 '한국남성동성애자 인권운동단체'입니다. 1993년 결성된 국내최초위 동성애자 인권운동 모임인 '초동회'에서 비롯된 친구사이는, 그동안 음지에서 힘들고 외롭게 방황하던 동성애자들의 따스한 쉼터가 되기도 했고, 동성애자들에 대한 억압과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치열한 투쟁의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친구사이는앞으로도 동성애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고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겠습니다.

친구사이 설립목적

- ① 동성애자 및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왜곡된 시각을 바로 잡는다.
- ②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스스로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 ③ 동성애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건강한 동성애 문화를 개발/확산시킨다.
- ④ 에이즈 예방운동 및 HIV감염인들의 인권을 보호한다.

친구사이 2005년은

- 1. 청소년 인권 학교 국가인권위프로젝트 당선으로 청소년 프로그램 강화
  - 사업의 전문성 및 자금 문제 해결
- 2. 엠티, 오티 등 정례화 된 사업 유지
- 3. 활발해질 에이즈 사업에 대한 입장 정리 필요
- 4. 나누리+ 등의 연대 활동 지속
- 5. 새로운 사업의 구상
- 6. 재정 안정화 및 상근자 선임

연세대학교 컴투게더 [www.e-queeryonsei.com](http://www.e-queeryonsei.com)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이반 공동체 컴투게더입니다. 저희 컴투게더는 1994년 4월 1일 처음 탄생한 이래 올해 4월 10주년 행사를 치름으로서 긴 시간 동안 이반 커뮤니티의 담당한 일원으로서 성장해 온 것을 자축했습니다. 대학 이반 모임 중 가장 먼저 생겨난 저희 모임은 그간 많은 선배님들과 후배님들께 이반으로서 자신의 프라이드를 느끼실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왔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10 살이 된 지금 저희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더 많아졌음을 느낍니다. 저희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만나는 사적인 만남들보다 더 가깝고 친밀한, 즉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생활을 공유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모임을 지향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제 우리들만의 삶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더 적극적으로 타 학교나 단체와의 교류함으로써 모임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반이라든지 트랜스 젠더와 같은 용어들이 이전 일상 생활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성적 소수자에 관한



지식들은 널리 퍼지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이반 커뮤니티의 내실있는 성장으로 연결되는가에 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모임은 항상 현재적인 관점에서 이반들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한국에서 성적 소수자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자기 정체성 발견과 이반 커뮤니티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로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 컴투게더가 겪어 왔던 많은 일들은 한국 성적 소수자들의 역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한국에서 성적 소수자로서의 삶의 모습과 컴투게더의 모습은 분명 현재와는 많이 달라질 것이고, 또 반드시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10돌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려는 저희 컴투게더에게 여러 분들에게서 많은 응원과 관심을 보여주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e-queeryonsei.com  
대표 메일: ys-cometogether@hanmail.net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준) [lgbt.kdip.org](http://lgbt.kdip.org)**

민주노동당은 창당 이래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들 다수이나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자들과, 소외된 자들 안에 소수자들, 소수자들 안에 소수자들의 이해와 권익을 대변하며 궁극적인 인간해방의 세상을 지향하는 진보정당으로 자처하며 그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당은 성장을 지속하여 진보운동 진영의 숙원이었던 국회의원을 10인이나 배출하는 성과를 달성하였고, 당원 숫자도 7-8만에 육박하는 팽창을 보이고 있는 현황에 비추어 다양한 진보담론에 대한 공유와 배양, 연구는 실질적인 발전의 기초도 쌓고 있지 못한 현실입니다.

남한사회에는 많게 잡아 300만 가량, 적게 잡아도 100만 가량의 성소수자들이 이성애 지상주의의 질곡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은 스스로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스스로의 해방을 위한 조직을 결성하고 스스로의 해방을 위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지 10여년의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그 10여년의 성과는 10 여개의 인권운동 단체들과 수를 셀 수 있을 만큼의 성소수자 인권운동가들, 4회째 진행된 퀴어문화 축제와 퍼레이드, 수없이 많은 모임들 그리고,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공약을 처음으로 걸어주는 진보정당의 등장, 딱 이만큼입니다.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고 험합니다.

민주노동당의 갈길도 멀고, 성소수자 인권운동 진영의 갈길도 멀고 또 험합니다. 이 두갈래 길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성소수자 해방과 함께 가는 인간해방의 큰 길에서 함께 큰 강물로 흘러가야

할 지류임에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에 산적한 문제가 있듯이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에도 남한 유일의 진보정당이 담보해야 할, 응당 책임져야 할 부분이 존재하며 이는 민주노동당에게 부여된 책임이라 할 것입니다.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성소수자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또한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성소수자인권상담센터

[www.lgbtpride.or.kr](http://www.lgbtpride.or.kr)

상담 및 문의 전화 / 메일 02\_778\_9982/ [queerkorea@empal.com](mailto:queerkorea@empal.com)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관대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성적체성을 깨닫는 과정에서부터 끊임없는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그런가? 나는 왜 정상이 아닌가? 라는 식의 물음들은 우리가 살고있는 이 사회에서는 자긍심pride이 아닌 부끄러움, 낙인, 차별로 되돌아옵니다.

위기의 순간에 서 있는 성소수자들은 그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구제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결국 포기해야만 합니다.

반면, 상담의 범위는 점차 다양해지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벼운 성관련 질문과 정보를 얻고자 하는 상담에서 협박과 폭력, 자살, 기혼문제, 가족, AIDS, 정신건강, 해고 등 개인의 신변과 관련된 상담들이 늘어나고 있고, 법률 의료지원이 절실한 상담과 위기의 순간에 개입해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로 하는 상담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소수자 주변의 가족과 친구, 직장동료, 기혼 성소수자들의 아내와 남편들이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소수자들이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은 물론이거니와 상담을 원하는 이들을 담당할 상담원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 운영 아래의 상담소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상담소들은 성소수자 내담자가 원하는 상담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여건이 척박하고 실질적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성소수자인권 상담센터의 걸음이 미미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소수자인권상담센터는 그 시작을 성소수자 내담자에게 대강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닌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전문가 그룹이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연결망이 되어준다는 원칙 아래 성소수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합니다.



HUFSaneVAN은?  
cafe.daum.net/hufsanevan

동성애자 인권연대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 대학교 성적 소수자들의 모임 HUFSaneVAN(훙산이반)입니다.  
보통 애칭으로 저희끼리는 Hufsan(훙산) 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말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약자 인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HUFS)의 약자에 an을 붙여 외대인이라는 의미로 통합합니다. (외대생 전체가 쓰는 말이지요 ^^)

# HUFSaneVAN의 출발과 현황

외대의 성적 소수자 모임은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본격적으로는 2000년 4월 22일 Daum cafe에 동지를 틀면서 시작되어 5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한 레즈비언께서 모임을 개설하신 후 회원이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는 Cafe 가입자 500 여명 중, 정모를 통하여 얼굴을 비추신 60여명의 우수회원이 있고, 매달 정기 모임에는 대략적으로 20여명 정도가 참여 · 활동하고 있습니다.

초기 1명의 운영자가 운영을 전담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남성 1명, 여성 1명, 졸업생 1명의 3인의 운영자가 Cafe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걸어온 길

HUFSaneVAN의 개설 취지는 같은 학내의 성적 소수자들이 보다 편하게 서로의 고민을 나누기 위한 친목 모임입니다. 그간 정모가 필요 없을 정도로 매일 같이 캠퍼스를 누비며 일상을 공유하고 여러 가지 강의 정보나 취업 준비에 관한 조언들을 나누었습니다.

But, 단순한 친목적인 것들 뿐만 아니라, 성적 소수자에 대한 여러 가지 억압의 형태에 반대하는 행동들을 여러 단체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개설한지 다음 해에는 우리들의 문제에 대한 자체 스티디를 하였었고, Exzone사건과 같은 동성애자 차별반대에 대한 공동행동, 국어사전의 동성애 차별적인 표현에 대한 진정서 공동제출(국가인권위원회), 전쟁에 반대하는 집회 등 직접적으로 행동한 적도 있었고, 각 인권단체나 대학모임의 행사 및 세미나 때에 참가하여 여러 단위들과 함께 즐기고 고민하여 왔습니다.

특히 동성애자 인권캠프의 전신격인 제1회 대학동성애자인권캠프에 준비단으로 결함을 시작으로 매년 캠프마다 HUFSaneVAN의 공식적인 행사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HUFSaneVAN은 계속될 우리 성적 소수자들의 논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 Pride Party! 흥겨운 축제로~!

동성애자 인권캠프 Pride Party에 참가해주신 모든 여러분들을 공동준비단으로써 HUFSaneVAN은 너무도 환영합니다. Pride Party를 통하여 만날 개개인 여러분의 Pride의 세계가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이번 Camp로 맺게 될 여러분들과의 인연을 HUFSaneVAN은 소중하게 간직하고 돌아오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Party로 떠나볼까요?

Let's go~~!

동성애자 인권연대는 동성애자 억압에 반대하는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양성애자 그리고 이성애자가 함께하는 단체입니다. 동성애는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인류의 자연스러운 생활 양식의 일부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적 사례속에서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에이즈를 들먹이며 동성애자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에이즈는 바이러스일뿐 동성애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에이즈 감염인 중 4분의 1 정도가 동성애자이고 그 나머지인 4분의 3은 이성애자입니다. 에이즈 퇴치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바이러스가 묻은 주사바늘 등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과 안전한 성관계(safe sex)일 뿐입니다. 에이즈로 동성애자를 공격하고 억압하는 것은 동성애자를 더욱 움지로 내몰고, 진정한 에이즈 퇴치를 방해할 뿐입니다.

동인련은 동성애자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자인권연대'라는 명칭에는 '인권'과 '연대'의 중요성에 대한 회원들의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동인련은 동성애자 억압의 기원과 억압을 깨뜨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동성애자로 산다는 것은 등의 주제로 회원교육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주제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 단체가 '여성의 날' 행사에 참가하고, 민가협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하고 매 이데이나 민중대회에 참여 등 여러 행사나 투쟁에 참여한 것은 동인련이 여성 억압에 반대하고, 양심수 석방을 지지하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자 억압은 여성억압이나,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억압과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만이 싸운다면 완전한 동성애자 해방이 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동인련은 억압에 반대, 투쟁에 지지를 보내고, 함께하면서 그 안에서 동성애자 억압에 같이 반대하자고 호소합니다.

무엇보다도 동인련은 동성애자 인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차별 금지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찾으려는 행동입니다. 동성애자 해방은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해방과 맥을 같이 할 것입니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하반기 평등하고 소수자를 배려하는 교육을 만들어가기 위한 '모두를 위한 교육' 프로젝트와 세미나 / 회원의 밤 / 인권포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과 함께 보다 대중적인 모습의 동성애자 운동단체로 다가갈 것입니다.

www.outpridekorea.com

02\_778\_9982

lgbtpride@empal.com



### :: 우리에게 가족이란 무엇인가? \_ 전체강연

문현아 \_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연구원

- 현재 자본주의 사회의 가족제도와 가족문제 전반?

1) 현대사회에서 가족제도는?

헌법 제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어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근대산업사회는 가족을 공적이고 경쟁적인 사회로부터의 피난처, 즉 위안과 평안을 공급하는 최후의 사적인 보루로 만드는 '근대 가족' 을 구축.

: 가족은 자연스러운 것?

: 가족은 신성불가침의 사적 영역? 혹은 노동 재생산을 위한 장소?

: 가족은 혼인을 기본으로 이루어지는 것?

: 가족의 구성원은 누구? 그 관계는? 민법 779조에 가족의 범위는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 규정에 의하여 그 家에 입적한 자' 로 규정.

2) 사람들은 왜 가족을 만들고, 그 안에 있고자 할까?

- 家의 글자는 '宀' + 豕 의 조합. 즉, 家라는 글자는 일정한 '우리 속에 갇혀 있는 돼지' 의 형상. 돼지는 다산과 번성의 상징.

족族은 湊(물이 모이다), 聚(모여 들다)의 의미로서 화살이 가득 담긴 자루로 수많은 화살이 함께 담겨져 있는 모양. 영어의 family는 라틴어 familia가 어원. "하나의 건축물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경제단위로서 가정의 주된 역할은 동거(同居), 공재(共財), 합찬(合爨).

- 사랑, 섹슈얼리티와 결혼 그리고 가족

- 노동, 재산 공동체와 가족.

- 가족내 성별 역할의 분리.

3) 성소수자는 어떤 면에서 가족제도에서 소외되는가? 성소수자 억압과 가족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우리는 (남녀간으로 성립되는) 결혼의 신성함을 지켜야만 한다."

-부시대통령의 2004년 연두 국정연설

: 부시는 메사추세츠 판결에 대한 반격을 시작하면서 동성결혼 금지를 위한 연방헌법 개정안 상정. 2004년 공화당은 11개 주에서 동성결혼금지를 위한 주 헌법개정안을 통과. 현재 동성결혼이 법제화된

국가는 벨기에, 네덜란드, 캐나다, 스페인.

- 가족에 대한 지배적인 담론이나 관점은 모두 이성애적인 가정을 전제하고 이에 따른 역할 분담을 내재화. "근대가족" 의 이상형을 벗어난 형태는 부적절 혹은 비정상적으로 취급.

cf) 커밍아웃과 관련하여 원래의 가족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는 중요한 고민.

게이 남성 커플 중 아이를 키우고 싶어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아이를 여성이 키우도록 되어 있는 제도 속에서 지배 이데올로기를 깰 수 있는 역할 모델을 쉽게 찾을 수 없다 등등

- "doing family", Nancy Naples의 사례?

- 레즈비언 커플 결혼 사례. 저항과 승인의 복합적 전략. "We're here, we're queer, get used to it!"

4) 현대사회에서 가족은 무너지는가? 아니면 공고해지는가? 가족을 해체하거나, 게이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대안인가?

- 현대사회의 가족 위기설, 해체설, 신가족주의설, 정상가족건강가족설 등등

-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 주말부부, 한부모 가족, 별거 가족, 동거가구, 동성애가족, 무자녀가족, 독신가족, 맞벌이가족, 독거노인, 동거가족, 혼숙가족, 보호소가족(웰터), 소년/소녀 가장가족 등등.

- "동성애 부모가 키우는 청소년들이 심리적인 면이나 다른 사회생활 면에서 이성 부모를 둔 동료 집 단과 큰 차이 없이 적응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 "그들은 매우 정상적으로 적응하고 있다. 이성 부모가 양육하는 아이들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

- 동성결혼 법제화에 대한 입장 (미국의 사례)

Nancy Polikoff(1993) : 레즈비언과 게이 결혼을 법제화하려는 노력은 결혼제도에 대한 대중적 비판을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고 논평. 결혼은 젠더 불평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기반화된 사회 형태의 하나. ↔ Andrew Sullivan(1995)과 Bruce Bawer(1995)는 결혼의 합법화에 초점을 맞추어, 이것이 평등한 처우를 위한 진보적 성취의 중요한 요소임을 주장.

이와 다른 입장에서 지지하는 Morris Kaplan은 동성결혼이 시민 불복종의 한 유형을 만들어냄으로써 기본적 사회제도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닐 수 있다고.

- Nancy Naples : 미래가족에 대한 제안? 가족은 당연스런,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하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 가족은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차이를 존중하고 친밀함의 다양한 표현에 개방된 형태를 띠어야 한다.

\* 참고문헌 \*

이숙인(2005), 『동아시아 고대의 여성사상』, 여이연.

Mary Bernstein and Renate Reimann ed(2001), Queer Families Queer Politics: Challenging Culture and the State, Columbia Univ. Press.

"동성결혼을 둘러싼 미국사회의 갈등: 공화당 득세와 동성결혼 법제화 운동" (www.ildaro.com, 2005-05-03, 미니기자



### 동성애자 가족의 유형 및 의미

동성애자인권연대 회원 여기동

"동성애자로 살아가면서 가족의 유형은 어떠한가 그 가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은 우리사회의 지배적으로 정의되는 동성애자의 부모와 형제 즉 생물학적 가족의 의미보다 훨씬 크고 넓다.

이반에게 있어서 가족은 동성혼 부부 또는 커플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될 수 있는 순수 이반 가족은 제1가족으로, 동병상련의 아픔을 서로 어루만져주며 지지해주는 이반커뮤니티의 가족은 제2가족으로 그리고 이반 개인의 생물학적 부모와 형제는 제3의 가족으로 구분된다.

우리 사회에서 뿌리깊고 악질적으로 동성애자를 차별하고 억압하는 요인은 천박한 이성애우월주의와 동성애혐오증이다. 이 두 가지 고질병은 동성애를 비정상이고 병리적으로 간주하여 모든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동성애자를 차별하고 억압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부모, 형제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가족간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심하면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온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롭고 평등하며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행복의 권리가 있다. 우리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람들과 화합하고 더불어 함께 할 것이며, 우리를 차별하고 무시하면서 억압하는 자들에게는 단호함과 엄격함으로 저항하고 투쟁으로 직면해야 한다.

#### I. 동성애자 가족의 3가지 유형

##### 1. 제1가족: 동성혼 부부 또는 이반커플

결혼이란 인간으로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책임지는 고유한 권리이자 특권이다. 결혼법은 친밀하고 화목한 가족관계를 지지하고 보호하는 강력한 법적 그리고 사회적 헌법이다.

결혼은 사랑 안에서 당사자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결코 부모형제나 이성애우월주의자 또는 국가 간섭할 수 없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에도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자유권, 평등권 그리고 행복추구권과 결혼권**

#####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 헌법 제36조 1항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동성혼 커플은 우리사회에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동성혼은 당연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존중하는 것이야 말로 헌법의 정신이 지켜지는 것이다.

#### \*동성혼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깨자

##### 1. 동성혼은 동성애자의 특권인가?

No. 현재의 결혼제도는 이성애자들만의 특권이다. 동성혼은 이성혼 부부가 누릴 수 있는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를 평등의 균형추가 될 것이고 동성혼이 보장될 때 완전한 법적 평등이 실현되는 것이다.

##### 2. 동성혼은 역사적 퇴보를 의미하는가?

No. 결혼은 역사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진보하여 왔다.

##### 3. 법적으로 인정받을 생각 말고 그냥 인정해줄 테니 살아라?

No. 결혼은 많은 법적 권리와 의무를 내포하고 있다.

(예) 사회보장과 의료보장과 같은 각종 사회보장 혜택

동성혼 부부의 입양권

주택, 자동차, 건강보험 등의 보험상속권리

유서 없이 자동적 유산상속과 같은 모든 친권

수술과 같은 의료처치시의 의사결정권 등...등등

##### 4. 결혼법 대신 시민결합(civil union) 이나 파트너십 제도도 괜찮지 않나?

No. 시민결합이나 파트너십제도는 처음에는 긍정적일지 몰라도 엄밀히 보면 이는 동성혼을 이성혼과 차별하고 분리하는 불평등한 제도이다. 따라서 그 어떤 제도도 동성혼을 대체할 수 없다.

##### 5. 게이, 레즈비언 부모의 자녀는 모두 동성애자가 된다?

No. 많은 연구에서 이반 커플의 자녀들이 이성애자 가정에서 키워진 아이

들과 마찬가지로 건강하고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반부부들이 키운 아이들이 다른 이성애자부부의 아이들보다 더 많은 동성애적 사건이나 성적체성의 문제를 갖지 않는다. 이성애자 사회에서 이반 부모와 함께 자란 이반 자녀들은 낙인과 힘든 난관에 부딪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문제들을 잘 극복한다(미정신의학회, 2000: www.psych.org).

#### \*동성결혼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5가지 이유

##### 1. 평등권(equal rights)

동성결혼법의 쟁취는 즉 평등권을 획득하는 것. 헌법은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는 것이어서 당연히 동성애자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2.평등한 보장(equal inclusion)

이반커플은 경제적, 법적, 의료시스템 등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 단지 결혼법이 없기 때문에

3.평등한 보호(equal protection)

(예) 입양, 병원방문, 의료적 결정권(medical decision)

4.평등한 사회보장(equal benefit)

(예)파트너의 사회보장(social security), 연금, 부동산

5.평등

분리는 원래 불평등한 것. 시민결합으로 결혼을 대체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법은 결혼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은 결혼을 civil union이란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분리는 불평등한 것이며 동성애자의 결혼도 법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동성혼을 획득하는 3가지 방법

1.아는 것이 힘이다: 공부하고 부지런히 타인에게 전파하자.

2.동성혼을 이야기 하라: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동성혼을 이야기 하자.

3.제도를 만들라

정부는 국민의 이야기에 따라 변한다. 국회의원도 만나고 동성혼을 지지하도록 이야기하라 동성애자의 권리를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하라

2.이반커뮤니티 가족

커뮤니티 구성원 서로가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며 지지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제2의 가족이다. 우리는 서로 친밀감이 있으며 차별과 억압 같은 어려움에 공동으로 대처하기도 하고, 기쁜 일과 슬픈 일을 함께 나누며 살아 간다. 이와 같이 제2의 가족은 포비아적인 제3의 가족보다 백배 천배 나은 좋은 이웃,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

3.제3의 가족:이반의 부모와 형제로 구성된 생물학적 가족

▶ 게이레즈비언부부 및 자녀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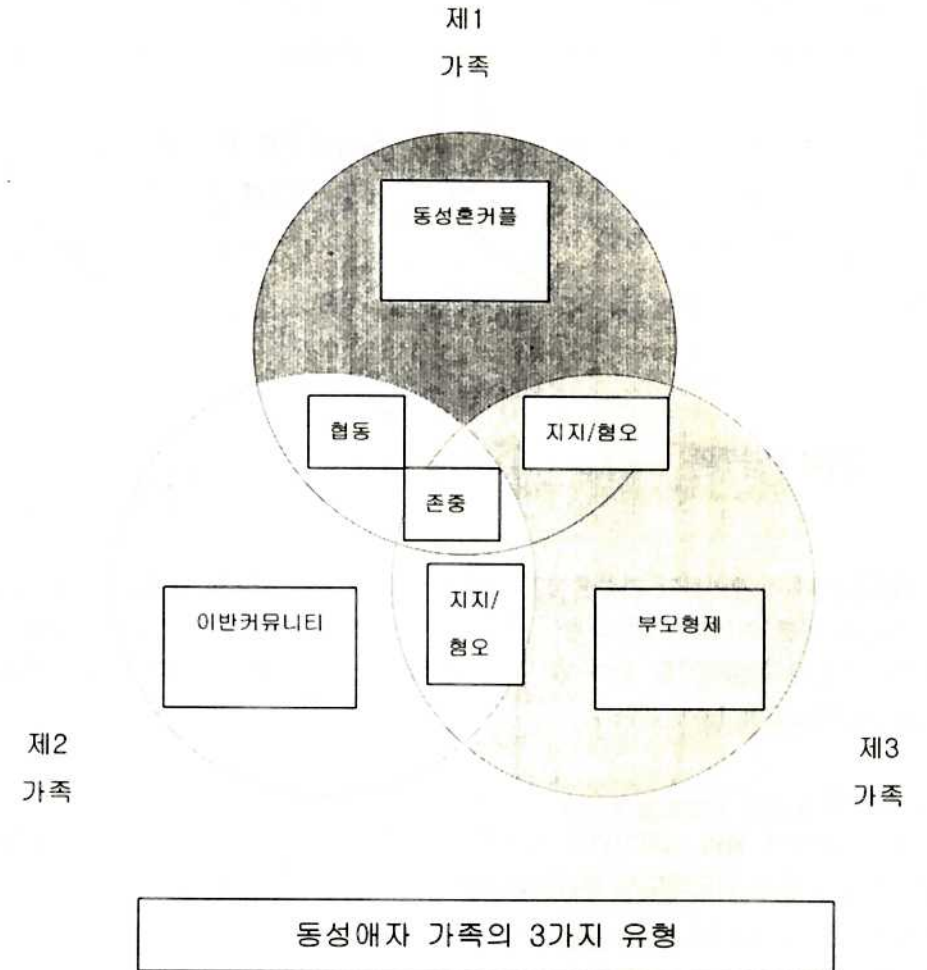
이반의 부모들은 무엇을 경험하는가? 부모에게 커밍아웃 한다면 부모와 형제들 모두에게 정신적으로 매우 쓰라린 경험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이 사회에서 낙인 찍히는 그룹의 일원이 됨으로써 받는 고통을 생각하면서 자식의 행복을 걱정하게 된다. 또한 부모들은 당사자 자신의 가족, 친구, 종교적, 사회적으로 부터 거부 당하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 한다. 외국의 경우 다 행히도 그들 자녀의 동성애를 인정하려고 노력하는 PFLAG와 같은 부모 친구들이 지지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러한 지지협력그룹의 구성과 역할이 기대된다.

제3가족과의 화합과 직면

커밍아웃: 솔직하게 고백 그리고 자아에 대해 자세히 설명, 자신이 가족에게 바라는 요구의 메시지를 전달

상호존중의 원칙을 고수: 가족이 원하는 선의 확인 및 대처전략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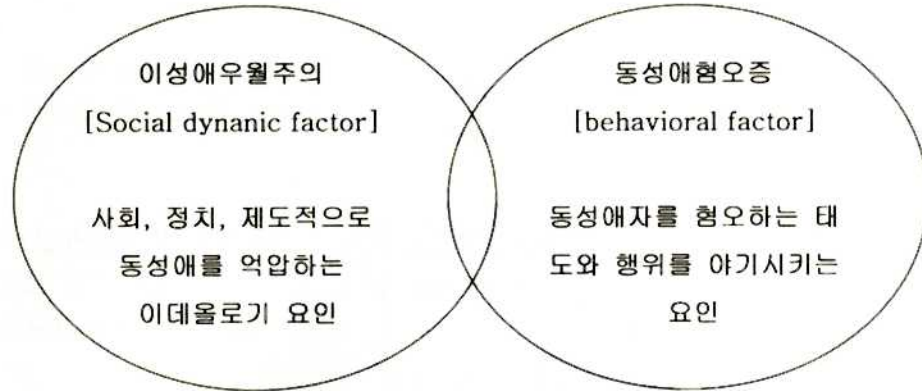
가족내 혐오에 대한 한치의 물러섬 없는 투쟁





## II. 동성애자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이데올로기와 요인

### 1. 천박한 이성애우월주의와 동성애혐오증



### 2. 유교문화와 기독교 근본주의

#### ▶ 유교문화

한국은 유교문화 속에서 개인보다 가족중심의 요구가 우선시 되는 사회적 규범을 강조하고 있어서 이반은 대를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그 잘나빠진 가문의 체면과 품위유지 때문에 동성애자를 쫓아 낼 수 있고 장남의 경우 대를 이어야 하는 고통에 빠지기도 한다(Nakajima, Chan & Lee, 1996).

#### ▶ 기독교근본주의

한국전쟁 이후 기독교가 널리 보급되면서 북아메리카 기독교 근본주의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문자 그대로 보는 동성애 혐오태도가 형성되었다(Nakajima, Chan & Lee, 1996).

## III. 이반의 새로운 세계관

- "나는 나, 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나답게 살아가기"

### 1. 이반의 세계관 성장발달 3단계

1단계: 의존기 → 2단계: 분리기 → 3단계: 독립기

## 2. 동성애 성정체성 중심의 심리사회문화적 관점의 제도수립의 필요성

(psycho\_socio\_cultural perspectives on sexual identity as sexual minority)

-동성애 해방운동은 고도의 정치적 전략과 정책이다.

성소수자의 차별과 억압의 이데올로기: 이성애우월주의+동성애혐오증

성소수자에 대한 헌법에 보장된 자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의 실현이 필요

성소수자 관련 범주와 주요내용

- ▶ 위한 행정부처의 역할 확대
- ▶ (예) 외교통상부 성소수자 특별법
- ▶ 동성혼특별법: 동성혼 인정, 결혼 의무 및 이혼, 입양권 보장
- ▶ 성소수자 혐오방지: 협박, 희롱, 폭력, 폭행, 성희롱 및 성폭력
- ▶ 성소수자 담당부서의 신설
  - : 중앙정부, 지방정부(광역시, 도별), 지방자치의회에서 성소수자를 위한 정책 생산 및 지원,
- ▶ 성소수자 통계마련: 삶의질, 인구
- ▶ 성소수자들: UN인권위의 성소수자인권 특별결의안 찬성 및 적극지지
- ▶ 교육부

올바른 성소수자 교육 내용을 생산 및 홍보, 교사를 위한 성소수자 교안 마련, 청소년 성소수자의 상담 및 지원프로그램의 개발

#### ▶ 보건복지부:

성소수자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신체정신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포괄적 건강사업실시

#### ▶ 국방부:

군대 내에서 성소수자들이 차별 받지 않고 안전하고 평등하게 복무할 권리보장

#### ▶ 노동부:

성소수자의 노동권보장,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 받지 않고 고용상의 불이익이 없으며 평등하게 노동할 권리

#### ▶ 법무부:

성소수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그리고 행복추구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정치법적 제도마련

#### ▶ 국가인권위: 성소수자 차별의 모니터링, 인권향상 정책생산

#### ▶ 청소년위원회: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정책생산

참고문헌

여기동(2004), 한국 남성의 동성애 성정체성 발달과정과 정신건강문제,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Nakajima, Chan & Lee(1996), Textbook of Homosexuality and Mental Health



:: 2005, 전쟁과 변혁의 시대 광고



[www.alltogether.or.kr](http://www.alltogether.or.kr) / [www.marxism.or.kr](http://www.marxism.or.kr)

:: 8월 19일 금요일

2토론 12시 - 1시 30분

“동성애자 억압의 근원”

곽이경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교육위원 / 동인련 활동가)의 강연이 펼쳐집니다~!

:: 청소년, 청소년 동성애자 \_ 선택강연

시우 \_ 동성애자인권연대 회원

청소년이 느끼는 성소수자에 대하여 한마디를 하자면 일단은 굉장히 난해하다. 사실, 보통은 생각하지도 않을 문제니까 말이다. 그렇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문제 또한 바로 이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이다.

인터넷의 보급이 되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인 지금의 시점에, 보급도에 비례하듯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일찍 깨 달고 이른바 '데뷔' 를 하는 청소년 성소수자가 늘어나고 있다. (본인의 경우에도 비추어 본다면 꽤나 이른 나이에 온라인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한 그들의 성적 정체성은 트랜스젠더일수도 있으며, 게이일수도 바이일수도 레즈비언일수도 있다.

앞서 말한 청소년이 느끼는 성소수자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단순히 BL물(야오이)에서 나오는 사랑과 결실의 해피엔딩일까..., 아니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도 힘겨운 삶을 유지해나가는 슬픔과 애증의 베드엔딩일까...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이야기 하자면, 나의 성적 정체성인 게이로서의 삶은 하루하루가 시트콤이며 코미디이다. 사는 것은 즐거우며 친구들과의 수다는 유쾌하기만 하다. 언제나 연락하면 즐거이 떠들 수 있는 친구가 있고 여럿이 모여 술이라도 마시는 날에는 동네가 떠내려갈 정도로 수다의 홍수와 끼와 기갈의 향연이 이어진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 삶은 코미디와 같다. 그렇지만, 정확히는 블랙코미디에 가까운 삶인 것이다. 적어도 나의 삶은 그래왔고 내가 생각하는 삶은 그런 것이었다. 모두의 인생이 블랙코미디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청소년으로서 성소수자로 살아가는데에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뒤 따르기 시작한다. 거의 모두가 그랬을 테지만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깨 달은 사람들은 세상에 자기 같은 사람은 혼자인줄로 알고 있다.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후후) 그리고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다수로 만나게 됨에 따라 점점 마음의 위안을 얻고 일상생활에서는 못 얻은 무언가를 얻게 된다.

그리고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첫 번째로 '학업'에 관한 것이 바로 그 예인데, 밖에서 놀다보면 당연히 소홀해 진다. 그렇다고 공부를 중히 여기게 되면, 밖에서의 생활이 소홀해진다. 적어도 나는 그랬다. 그 덕에 많이 잔소리를 듣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에게 무슨 일이 있냐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어느 정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니, 두 번째로 '미래에 나는 무엇을 하고 살게 될까'가 걱정이 되었다. 점점 주위에 아는 사람이 많아져감에 따라 자신만의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알게 된다. 그리고 형들과의 대화를 이어나가다 보면 '나는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인가' 란 스스로의 질문에 휩싸이게 된다. 가장 가까운 예로는 아직까지 본인은 진정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거의 3년을 소비하면서도 말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휩싸이게 된다.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과 성인을 막론하고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가족과의 관계' 일 것이다. 만약 자신이 집안의 장남이나 장녀라면, 결혼문제가 가장 심각해 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커밍아웃과 아웃팅중 어느 한 가지의 방식으로 자신의 성적 정체성이 가족들에게 알려지게 된다. 자신이 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밝혔을 때 부모님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성소수자로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첫 난관' 은 바로 가족들과



의 관계 자체 인지도 모르겠다.

세상에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당부의 말씀 한마디를 하자면, '커밍아웃은 되도록 독립이 되고 나서 하세요'

몇몇,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자신의 성적 정체성이 야기가 되어 학교에서나 집 안에서 피해를 보며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솔직히 어디 가서 하소연 할 곳이 당체 없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male to female 트랜스젠더... 남자에서 여성이 되고자 하는 트랜스젠더의 어렸을 적을 보자면 자신은 분명히 여자인데 육체적으로는 남자라는 것이다. 과연 이런 이야기를 부모님에게 할 것인가, 친구에게 할 것인가, 선생님에게 할 것인가. 그 어디에다가 상담을 구해도 '좋은 병원 있다' 라는 대답이 나오기가 일수일 테다. 단 한 가지 슬픈 사실은 그들은 결국 최후의 보루인 가정에서조차도 받아들여지지 못 한다는 것에 있다. 성소수자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할지언정 이토록 상처받은 사람들을 욕하고 멸시할 권리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위의 부분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자신의 성적정체성을 이미 깨 닳아 버린 청소년들은 가족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 것일까? 거기다가 자식의 성적 정체성을 깨 닳아 버린 부모님들이나, 친구, 학교선생님 등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라는 것이다. 모든 성소수자들은 마음 한편으론 자신을 이해해줄 사람을 찾음과 동시에 자신을 전과 같이 대해줄 변함없는 사람을 원하고 있다. 변함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것은 더 극대화 되는데, 하나같이 여리고 감수성이 예민한 성소수자들은 더욱 민감하게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다. 사람에 그리워하는 사람들이고 정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감싸줘야겠지 않겠는가.

나는 2년 전의 바로 이 동성애자 인권 캠프가 아니었다면, 아마 자신의 인권에 아무런 의문도 느끼지 않고 살아갔을 것이다. 2003년 그 더운 날에 있었던 여름 캠프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나는 많은 경험을 해오고 있다. 정보법 내의 동성애 위해조항 삭제를 위한 기자회견에 나가 발제를 했었으며, 퀴어 퍼레이드 역시 참가해 그 뜨거운 열기와 가슴 벅찬 감동을 느껴보았으며, 그 외에 반전시위에도 나가서 조그마한 외침을 더했던 적도 있었다. 여러 장소에 나가 여러 사람들과 만나며 나는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젊은 시절을 마냥 이태원이나 종로등지로 놀러만 다닐 것이 아니라, 한번쯤 인권을 이야기하는 이러한 자리에 서보는 것 또한, 살아가면서 또 성소수자로 살아가면서 얻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한다.

사실 특 까놓고 말하자면, 엄연히는 '남들과 다르게 규정되어지는 우리들' 이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들을 다르다고만 생각 하는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지, 우리들 퀴어의 삶은 남들과 같다. 그리고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일들 또한 같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들 퀴어들은 언제나 특별하니까 말이다.

I'm not different.

I'm unique.

And...

Queer is Unique~.

## 이반검열

여성영상집단 음 이 영

여자 중고등학교에서 머리가 짧으면 요주의 인물이 된다. 커트 머리를 하면 이반이라는 학교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판단 때문이다. 이 때문에 몇몇 여자 중고등학교에서는 커트금지와 같은 두발규제가 있다. 또한, 위커를 신거나, 험렁한 옷에 힙합바지를 입거나, 친구들과 손을 잡고 다니거나, 팔짱을 끼고 다닐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요주의 학생은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선생님의 호출을 당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성적정체성을 추궁 당한다. 추궁과 강압에 못 이겨 이반이라는 자신의 성적정체성을 밝힐 경우에는 그 순간부터 일탈학생으로 분류되어, 반성문이나 진술서를 작성해야 하고 같은 학교의 이반친구들의 이름을 아는 대로 말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명단, 즉 '블랙리스트' 를 작성하고, 학생주임 또는 학생부장 선생님을 통해 끊임없는 감시 관리한다. 학교에서 이반 청소년들을 '문제가 있는 학생' '문제아 그룹' 즉 일탈학생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관리하는 선생님의 말을 어겼을 경우 상담, 부모님 호출, 벌점, 교내봉사활동, 사회봉사활동 등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고등학교 당시 선도부장이었던 A는 친구들끼리 손만 잡아도 벌점을 주는 교칙이 있었고 선도부원들이 벌점을 주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그렇지만, 처벌의 명목과 방식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대학교 1년을 휴학하고 있는 B는 카톨릭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당시 성경책 전체를 몇 차례 그대로 옮겨 적는 처벌을 받았다. 그렇게 하면 이반에서 교화가 될 것이라는 선생님의 믿음 때문이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인 C는 1학년 때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선생님에게 걸린 후 블랙리스트에 올라 지금까지 3년 동안 학생주임선생님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반 친구와의 만남은 금지되어 있다. 점심시간에 함께 밥을 먹을 수도 없다. 하교 후나 쉬는 시간에도 만나면 안 된다. 또한 선후배와의 만남이나, 눈인사만으로도 처벌을 받는다. 이런 상황이 선도부에게 걸리면 학생주임 선생님에게 보고 된다. 어겼을 경우에는 교무실로 호출되고, 숙제나 교내봉사활동 등의 처벌을 받는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C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사촌동생이 곤란해질까봐 마주치는 것도 피하고 있다. C는 2달 전 이반친구와 만났던 것이 학생주임에게 걸려 현재는 어머니가 등하교 길에 동행하고, 하교 후나 쉬는 날에도 친구들과 만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 D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무실 앞에서 반 친구 10여명으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해 어깨가 탈골되고, 발목인대가 늘어났다. 집단구타의 이유는 이반이 어떻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느냐는 것인데, 즉, 동성애 혐오를 이유로 한 학교 폭력이었다. 그렇지만, 집단구타를 한 학생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고, D는 학교와 선생님으로부터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했다. 오히려 집단구타의 재발을 막는다는 이유로 한 달 동안 수업을 받지 못한 채 교무실에서 근신해야 했다.

D는 정말 억울했지만,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이반이라서 집단구타 당했다고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3년 내내 선생님의 차가운 시선과 무시 속에 생활해야 했던 D는 얼마 전 해군사관학교에 수시모집에



응시하려 했으나, 학생부장 선생님이 이반이기 때문에 사상이 불건전하다는 이유로 수시원서 작성을 거부했다. D는 우수한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수시모집에 응시할 수 없었다.

현재 19살인 E는 자신이 고등학생이던 3년 전 친한 후배 F의 자살 소식을 듣고, 깊은 혼돈과 우울증에 시달렸다. F는 학교에서 이반인 것이 알려졌는데, 선생님이 부모님을 불러 아웃팅을 시킨 것이다. F의 부모님은 F를 학교에서 자퇴시키고, 정신병원에 데려갔다. F는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자살을 하고 말았다.

이처럼 대부분의 이반 청소년들은 가족에게 이반이라는 정체성을 밝혔을 경우 가족의 지지와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심한 경우 전학, 자퇴, 구타와 감금 또는 사회로부터 격리되기도 한다.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가족에게 조차 학교에서 겪은 부당한 일들에 대해 털어놓을 수 없다. 그저 또래의 이반친구들에게 위로를 받거나, 이반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학교에서 겪는 억울함과 부당함을 하소연하고, 검열을 피하기 위한 대처법을 공유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반 청소년들은 학교로부터 정신적, 물리적 압박과 폭력을 겪지만,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고통과 두려움 속에 고립되어 있다.

동성애에 대한 무지와 혐오에서 비롯된 이반검열은 학교제도가 이반 청소년들에게 자행하는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이다.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에 대해 가르쳐야 할 학교가 억압과 폭력으로 인권침해를 해온 잘못된 길을 반성하고 바로 잡는 방법은 학교에서 동성애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 HIV/AIDS 고위험군 남성동성애자들이 처한 '위험'의 본질 \_ 선택강연

변진옥\_genuineok@hanmail.net

HIV에 감염된 사람들을 인터뷰한 경험이 있다. 그 중에는 남성동성애자들이 상당한 비율이 있었다. 처음 내가 동성애자이면서 감염자인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면서 놀랐던 것은, 이들이 그것을 '청천벽력'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혈우병감염자나 이성애자들은 감염사실에 대해 너무도 억울해 했다. 그들은 억울할 '권리'가 있었다. 그에 비해 남성동성애자이면서 HIV에 감염된 사람들은 대개 '올게 왔다'는 말을 하거나, '지는 죄가 있는데...'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한때 미국에서 'GAY'라는 말이 'GO AIDS YET'라면서 때로는 비아냥으로 때로는 자조적인 한탄으로 사용되었다는데, 이러한 분위기는 우리나라에서도 분명 존재한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동정과 연민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나는 연민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또는 AIDS는 도덕주의자들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거나, HIV가 AIDS의 원인이 아니라거나, HIV는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다. 이 글에서 나는 HIV가 AIDS의 원인이라는 전제하에, HIV전파에 대한 지금까지 밝혀진 위험행위들, 그리고 남성동성애자들의 성적 혹은 인생경험들, 그리고 그 둘의 관계들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그와 함께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전파의 위험(혹은 확률)이 높다는 것이 만들어낸 '고위험군 논리'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일 뿐인 것이다. 나는 위험이 유통되는 방식에 주목한다. 감염된 남성이 penetrating시에 감염시킬 확률이 0.2%라든가, 그 반대는 얼마라든가 하는 수치로 도배된 위험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인식을 사회적 경계만들기에 활용하는 '고위험군'이라는 역학적 용어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그와 함께 또 하나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HIV/AIDS는 현재 수준에서 치료는 불가능 하지만, 적어도 예방가능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HIV/AIDS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문제이다. 담배의 예를 들어보자. 흔히 담배는 기호식품이라고 해서 순전히 개인이 선택한 것이고 따라서 개인의 의지에 의해 조절될 수 있는 것으로 의사들은 여기는 것 같다.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특히 임신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다'는데도 아이러니 하게 여성과 청소년의 흡연이 별로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흔히 말하는 '건강위험행동'들이 개인의 의지와 관련된 것이라는 가정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 1. 위험

risk의 원래의 뜻은 어떠한 가치판단이 없이 단지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주사위 확률 같은 것이었다. 수학이 위험(내지는 확률)분석을 발전시켜 가면서, 이전에는 운이라거나 운명 또는 숙명과 같은 것들을 계산하기 시작한 것이다. 즉, 여러사건들이 그동안 일어났던 기록들(흔히 data라고 하는 것)에 어떤 수학적 규칙성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일은 일부사람들에게 무척 재미있는 일이었던가보다. 이들은 끊임없이 data를 만들어 내고 그 data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거나, 한 집단에서 일어났던 것이 다른 집단에서는 어떻게 될 지를 판단한다. 이렇게 위험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면서 'Risk'는 무소부재성을 획득하게 되고, Risk는 곧 danger를 의미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어떤 Risk도 부정적인 것이 되었다.

위험을 나누어 보자면 상당히 여러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건강분야에서 이야기 되는 위험이라는 것은 크게 두개의 주요관점으로 분류된다.

- 1) risk as health danger to population : 오염, 핵폐기물, 독성화학물질물  
; external, 개인이 컨트롤 할 수 없는 것
- 2) risk as a consequence of the 'lifestyle' choices  
; internal,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것

앞서 말했던 담배 이야기를 또 해보자면, 폐암에 걸릴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이 분진이 많은 작업환경이나 도로의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해가스 같은 것들보다 담배를 훨씬 더 큰 원인으로 생각하게 만든 이유를 대보자. 어찌보면, 누구에게 잘못을 전가하기 힘든, 외재적이고 구조적인 면 보다는 개인의 행위 탓으로 돌리는 것이 가장 편리한 것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증명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한다. 흡연이외의 다른 원인들은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럴 수밖에. 그것은 사회전체의 위계구조와 정치경제적 원리 등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한 사회에 의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선택된 위험은 '진짜' danger와는 관계없이 문화적으로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예가 건물의 방화를 위해 설치되었던 석면을 둘러싼 패닉이다. 몇몇 국가에서 건물들로부터 이 석면을 제거하기 위해 많은 돈을 들였는데, 석면이 석면중독, 폐암 같은 심각한 질환의 원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석면유리섬유에 장기간 노출된 석면취급노동자에게는 문제가 되지만 이러한 석면절연체가 노출되지 않고 건물벽이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질병을 일으키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러한 건물의 철거로 인해 석면섬유가 날리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물질이 건강에 위험한 것으로 라벨이 붙고 그렇게 선전되었기 때문에 대중들, 특히 학교어린이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게 되고, 따라서 값비싼 철거는 계속된다.

무언가를 해야한다는 언명, health risk의 원천(그것이 아주 희박한 위험일지라도)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행동을 촉구한다. danger를 대신해서 risk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 상세한 계산이라는 허구"를 "과학의 오로라"로 표현하는 것같이, 중립성을 제공하는 수사적 효과다.

## 2. HIV전파의 위험

## 1) AIDS 역학

좋다. 그냥 위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순진하게 해석해서 뭔가 나쁜 것이 일어날 확률로 생각한다 치자. 역학이라는 학문이 있다. 영어로는 epidemiology라고 하는 것이다. 의학이 한 개인의 신체를 들여다보고 무언가 비정상(평균을 벗어나는)것을 발견해 내어 그것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하면, 역학은 그 대상을 전체 인구집단으로 확장시켜보면 된다. 인구집단 중에서 어느곳에 특정질환, 혹은 사망이 비정상적인 수준(평균을 벗어나는 수준)으로 많이 발생한다면 그 러한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집단을 여러 가지 기준(변수라고도 한다)을 가지고 뜯어본다. 예를 들어 특정지역에 콜레라가 유행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지도위에 점으로 표시되고 순서에 따라 화살표가 붙고, 최초발생자에게 무슨일이 일어났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그 최초발생자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가 조사된다. 그러다 보니, 최초발생자가 어느집 상가집에 갔다왔고, 상가집에서 상한 홍어를 먹었으며, 이 홍어가 현재 콜레라가 유행중인 중국의 어느지역의 어부가 잡은 것이었다는 등등의 원인 규명이 있게 된다.

역학적으로 위험집단은 특정질환에 걸릴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을 의미한다. 이런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그 특정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으므로 일반대중을 위험에 노출시키며 따라서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초래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위험한' 사람들과 '일반대중' 사이에 경계가 세워진다. 이것은 지리적인 집단을 말하기도 하지만, 상당수에서 라이프스타일(생활습관)과 관련된 집단의 동질화라는 단순화를 수반한다. 특정 라이프스타일을 위험과 연결시켜 집단화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역학자는 위험인지와 질환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역설한다. 예를 들어 흡연은 폐암의 위험을, '불완전한 성'은 에이즈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라이프스타일 논의에 위험이라는 것 외에 중심적인 또 하나의 개념이 "통제" 개념이다. 라이프스타일을 개선하여 어느 정도 질환의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지가 그래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자, 그럼 남성동성애자가 HIV고위험 집단으로 개념화된 혹은 주장된 과정을 한번 역학적으로 살펴보자. 어느 순간 그동안 의사들이 잘 관찰해오지 못했던 질병이 미국의 서부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었다. 그러더니 여기저기서 비슷한 사례들이 보고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이 제한된 data를 가지고 짚을 굴려보았더니, 이 데이터에 최초로 동성애자, 그다음 마약사용자, 매춘여성, 혈우병환자, AIDS감염여성의 아이들에게서 AIDS가 발견되었고 이들이 위험그룹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역학은 일단 질환으로부터 가장 일반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연관성을 가지고 질병을 통제하고자 하는 게 중요한 방법인데 이를 유식한 말로 '원인적 상관성'이라고 부른다. 일단 이 집단들과 이 무서운 질병이 상관인 큰 것으로 보아, 성관계, 혈액, 유즙이 문제가 있다고 결론짓게 된다. 그리고 나서 감염자들에 대해 여러 검사를 해보다 보니 결국 HIV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어차피 HIV는 여차저차 하여 원인바이러스를 원천봉쇄하기 어렵다.

결국 그 이전단계, 혈액, 정액, 유즙 등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체액의 교환을 통제해야 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것은 사실, 개인의 행위에 원인을 돌리기 쉬울 뿐 아니라, 역학의 정치적 효용성을 증대시키는 전략이기도 했을 것이다. 결국 체액의 교환이란 게 무엇이겠나. 결국 AIDS가 성적인 행위로 인한 전파로서 강하게 인식되면서 AIDS감염은 곧, 성적 관계의 사회적 유형을 반영하는 것이 되고 만 것이다.

이 과정들은 위험집단 개념(역학의 중요한 해석적 장치)의 단순화를 초래한다. 대중들은 단순한 것을 훨씬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남몰래 키워오던 증오와 결합하면서 이것은 대중 속으로 빠르게 침투되었고, 따라서 사회적 정체성이 감염위험을 측정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 버렸다.

이것이 '위험집단 논리'의 본질이다. 단순하여 유통이 쉽고 사람들의 감추어진 욕망과 쉽게 결합한다. 이 위험집단 논리의 결과로 말하자면 고위험 집단들, 이들은 다시말하면 평소에도 가장 자유와 기회가 박탈된 사람들이어서, 어떠한 자원에도 접근불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다. 즉, 사회에 위험이 발생하면, 이들은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이다. 동성애자, 마약사용자, 섹스워커, 가난한 아



프리카 여성, 이들이 단지 AIDS에만 위험한가?

이들은 지식이 부족하고 의지가 약해서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를 교정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비난받아 마땅한가?

위험담론에는 군사적 느낌을 주는 비유가 통용된다. 위험은 '침입' 하고 '타격' 을 가하며 '점령' 한다(sontag, 1988). 위험의 발생은 언제나 다른 곳에서 비롯된다. 다른 나라 아니면 '다른' 사회집단, 따라서 '일탈된' 것으로 생각되는 사회집단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에이즈가 아프리카에서 처음 발생했고 현재도 창궐하고 있다는 생각은 빈곤, 질병과 기아가 동반자인 이 불모의 대륙을 보는 서방의 시각과 정확히 들어 맞는다.

에이즈가 한국에 처음 발견되었던 1980년대 중반에 진보적인 보건의료지식인들의 구호는 이런 것이었다. '더러운 양키병을 가지고 오는 미군을 철수하라.' 이러한 구호의 잘잘못을 지금 현재의 눈으로 재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는 하지만, 이처럼 자신들의 평소 혐오자와 질병의 연관성이 얼마나 쉽게 결합되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된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게이와 마약사용자에게서 주로 나타나던 감염형태가 현재는 이성애자들에게 더 확산되고 있다. 반면에 아프리카는 이성애형태가 감염의 80%에 이르렀는데, 여기서는 다른 성병이 HIV감염과 밀접한 연관을 보였다. 아시아는 감염의 시작은 늦었지만, 마약사용자와 섹스워커들에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성애자로 매춘에 종사하지 않는 계층에 널리 확산되어가는 추세라고 한다. 일본의 이성애감염이 타이의 매춘여성과 관련된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콘돔의 바른 사용이나 절제에 대한 개인의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암시한다. 사회적이고, 정치적이며 경제적인 요인들이 관련된 복잡한 과정인 것이다.

의료사회학이 역할을 비판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이다. 역학은 원인 물질에 접촉하기 쉬운 생활습관(라이프스타일)에 문제를 고정시키고 개인이 그러한 통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면 질병 예방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한다. 따라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개인들은 무식하거나 의지가 없는 사람들로 치부 혹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논리가 존재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본다. 첫째, 행동습관이 건강과 관련이 있긴 하지만, 그러한 습관을 둘러싼 환경보다는 건강에 대한 영향력이 적다는 이유이다. 블랙스터(Blaxter, 1990)는 건강과 라이프스타일의 연구를 통해 해로운 행동습관을 고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집단은 환경적으로 혜택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두 번째로 개인이 라이프스타일을 바람직하게 바꿀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는 이유는 모든 사회적 행위가 사회적 환경속에 뿌리박혀있으며, 또한 환경에 의해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여성과 흡연에 관한 논의가 이점을 잘 설명해 준다. 여성흡연에 대한 조사를 통해 흡연은 여성 일상의 한 본질적인 부분을 형성하며 가난 속에서 가족을 돌보는 대응방식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흡연이나, 특정 소위 불건강행위라는 것들이 단순한 생활습관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환경에서 삶에 적응하고 살아가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라는 점을 간과한다는 것이다.

마약을 사용하는 게이들에 대한 연구에서, 사실 어떤 강박(절제, 죄의식)같은 것들이 제정신으로 성관계하는 것을 막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약물에 의존해서 성행위를 갖게 되고, 그것이 예방적 행위를 잘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많다고 한다. 즉,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행위를 고정시키는 어떤 맥락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 2) 남성 동성애자의 경험

우리나라의 경우에 알려진 바가 없지만, 프랑스의 연구에 의하면, 게이사회에서 HIV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콘돔사용에 대해 환영과 캠페인이 지속되었음에도 그 실천에서는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여준다고 한다. 펠라치오를 할 때 콘돔을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단지 입안에 사정을 하지 않는 대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삽입에 있어서는 캐주얼 섹스의 경우 4분의 3정도가 콘돔을 사용하지만, 정기적 파트너의 경우에는 파트너와의 관계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서로 HIV에 감염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있는 파트너는 거의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또 그 반대로 둘 다 감염되어 있는 경우에도 콘돔사용이 높지 않으며, 단지, 한쪽만 감염되어 있을 경우에는 콘돔사용이 일반적인 물처럼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성관계 하는 사람이 있다. 더군다나 일정한 파트너를 가지고 있으면서, 소위 '혼외정사' 를 하고 있는 경우, 이들의 고정파트너와의 관계 시에 콘돔을 사용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은 신뢰와 콘돔의 역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아마 우리나라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동성애자들은 아마 다른 어떤 집단보다 HIV에 대해 많이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HIV-test도 우리나라 남성들의 평균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받는다. 그렇지만 AIDS예방운동이 강조하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콘돔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과 실천의 차이는 콘돔이 나를 HIV로부터 조금은 보호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고정파트너와의 신뢰는 망가뜨릴 수 있으며, 고무의 감촉을 느끼면서 성관계하는데 대해 끔찍한 기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서 콘돔사용을 하려면 차라리 안하는게 낫다고도 느낄 수 있고, 더 고차원적으로는 동성애와 HIV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콘돔의 사용은 사실은 같은 위험을 공유하는 이성애자들에 비해 열등의식을 조장하는 것이어서 싫을 수도 있다.

평균적으로 동성애자들은 부모로부터 일찍 독립하는 경향이 있다. 요즈음은 덜해졌다고는 해도, 성적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동성애자임을 털어놓는 것은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 된다. 부모와 다른 대다수의 다른 성적정체성을 가진 친구들과 비밀을 유지하는 아슬아슬한 관계속에서 이들에게 동성애 커뮤니티는 내놓고 끼릴 수 있는 해방공간이다. HIV의 영향때문이라고 해석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고정된 파트너와의 관계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동거를 기본으로 하는 이성애식의 커플보다는 생활은 여전히 따로하는 비동거 커플이 상대적으로 유세하며, 어떻든 제도적 압력도 낮은 상황에서 성관계 파트너의 수는 평균적인 수준보다는 훨씬 많다. 특히 나이트 동성애자들의 경우는 고정파트너보다는 원 나잇 스탠드 관계를 더 선호한다. 동성애자들은 집을 일찍 떠나 주로 도시에 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몇몇지역에 밀집된 사교공간을 통해 교제한다. 물론 소위 말하는 '위험' 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미 감염된 동성애자의 경우에서 생각해 보자면 더 큰 위험은 동성애 커뮤니티에 감염사실이 밝혀지게 되는 것일 것이다. 이 좁은 바닥에서 누가 HIV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는 사회적 존재의 상실을 맞보아야 할 수도 있다. HIV감염이 됨으로써 그들은 에이즈에 있어서의 '동성애 신화' 의 산 증인이 되고, 다른 동성애자들이 운명적으로 직감하는 좌절의 끝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더 동정받으나 그와 함께 더 미움받는다. 이성애자들이 동성애자들에게 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상처를 준다. "그러게 그렇게 지지분하게 놀지 말았어야지."



## 3. 위험(risk)이 전달되고 대중들이 그 위험에 반응하는 양식

## 1) 위험의 유통방식

Risk에 대해 앞서 말한 것처럼 의사와 역학자들이 만들어낸 질병의 발생 가능성 내지 확률에 대한 수학적 계산이고, 전문가들은 그래서 자신들은 어떠한 편견이나 가치판단도 가지고 있지 않은채 Risk를 이야기 한다고 주장한다. 어려운 말로 위험을 역학적으로 개념화하면 '객관적이고 탈개인화되어 있으며, 양적이고 과학적으로 측정된 관계들로 묘사' 하며 질병의 원인들을 생의학 모델과 유사한 원인-효과 안에서 추적될 수 있는 하나의 요인 또는 분별할 수 있는 요소들의 조합으로 까지 환원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이 발생되는 순간(이것은 단지 확률에 불과하지만) 이것을 대중들이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것은 그러한 과학적 수사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개인은 건강에 있어서의 위험담론 안에서 각각의 위험률로 정의되고 딱지 붙여진다. 말하자면 요즘 유행하는 분석처럼 미혼의 남성이 기혼의 남성보다 몇 년 일찍 죽을 수 있다는 계산은 사람들을 혼인 상태로 수명이 예측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따라서 40이 넘도록 미혼인 남성은 '일찍 죽을 놈' 이 된다. 고혈압과 당뇨병 등 성인병에 대한 공포와 그 위험에 대한 끊임없는 각성은 운동과 요가강박을 만든다. 운동안하는 사람들은 성인병 위험확률이 몇배 더 높다는 수치를 곱씹으며 변명해야만 한다. 그냥 힘들어서 운동안한다는 이야기는 용서가 되지 않는다. 피치못한 사정을 만들어 양해를 구해야 '건강' 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통제에서 자유로워진다. 결국 위험의 유통은 사람들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게 하며, 이 통제를 벗어나는 사람들은 '위험집단' 속에 가두어진다. 그게 싫다면 적어도 나는 그렇지 않은 듯 연기해야 한다.

일단 위험집단을 분류되고 나면, 그들의 정체성은 이제 받은 환자로 취급된다. 동성애자는 그들의 건강상태와 관계없이 받은 HIV에 감염된 상태로 간주되고, 담배피는 사람들도 역시 받은 폐암에 걸린 상태로 간주된다. 이러한 불안은 위험집단으로 분류된 당사자와 그 이외의 사람들이 함께 유통하는 위험의 의미화이다. 역학자들은 인구수준에서 추상적으로 이야기 하지만, 개인들은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특정화해서 이해하게 된다. 담배피는 사람중의 0.5%가 폐암에 걸린다고 하면, 흡연자들은 그 수치를 개인화해서 자신은 일정부분 폐암걸린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sup>1)</sup>

결국 위험에 대한 계산과 그 지식이 사람들의 인식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전 인구 중 상당한 숫자가 에이즈는 예방조치 없는 성교와 오염된 주사기의 혼용으로 전파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면도기의 공동사용, 공중화장실을 통한 전파, 에이즈 환자 가까이 입원하는 것등의 일상생활이 '위험상황' 이라고 믿고 있다.

## 2) 위험에 대한 대중의 반응: 위험의 타자화

헬렌 조페의 '위험사회와 타자의 논리' 라는 책을 인용하고자 한다.

- '불안이 고조되는 위기의 시기에는, 외부집단에 대한 표상은 약간의 위험으로부터 사회의 핵심적 가치에 도전하는 자로 변화한다. 그 표상들은 점잖고 올바른' 우리 '와 파괴적이고 초월적인' 그들 '사이의 매우 강력한

분리를 반영한다'

- 절제는 서양사회의 핵심규범이다. 서양문화는 서양인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자기규제, 자기부정, 자기규율에 반대되는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기지는 '타자' 에 대한 공포와 매혹을 발전시켜왔다.

- 특히 전염병에 있어 만들어지는 표상은 '내가 아닌 타자' 에 그 질병을 일치시키고 있다. 15세기 매독이 유럽을 휩쓸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영국인들에게는 '프랑스 두창' 이었고, 파리인들에게는 '독일병' 이었으며, 폴로렌스인들에게는 '나폴리 병' 이었으며, 일본인들에게는 '중국병' 이었다. 1832년 영국에서 콜라레가 처음으로 대규모로 유행했을 때 이것은 '아시아 콜레라' 로 불렸다. 그것은 더러움, 과도한 음주와 정욕과 연결되었다.

- 매독으로부터 콜레라, 흑사병으로부터 나병에까지 집단적인 불치의 질병들은 역사적으로나 비교문화적으로나 '타자' 와 연결되어 왔다. 위험에 대한 저작들에서 '타자' 는 외국, 한사회의 외부집단, 그리고 지배적 문화규범내의 이질적인 생활습관들이라는 세가지 서로 연관된 현상들을 구성한다. 일탈적인 것으로 해석되는 생활습관들은 과도와 규제의 결여, 자아탐닉과 연관되어 있다.

=> 이러한 위험에 대한 과대평가와 타자화는 위험집단에 대한 억압적 태도의 지속을 강화하고 정당화시켜준다.

## 4. 위험집단과 위험행동

앞서 말한 것처럼 현재 남성동성애자들의 성행태는 아마도 HIV에 안전하지 않다. 그러나 이들의 콘돔사용과 관련해서 이들이 더욱 위험하게도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오명을 씌울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남성의 콘돔사용률은 일반적으로 높지 않다. 일반적으로 에이즈와 관련해 '일반대중' 과 '위험집단' 을 구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누구라도 '안전하지 않은 행위' 에 가담하게 되면, 마약주사를 사용하는 남성동성애자만큼이나 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높다. 왜냐하면 에이즈의 감염위험을 높이는 것은 어떤 특수 사회집단이 아니라, 예방조치 없이 항문 또는 질성교를 하거나 소독하지 않은 주사기를 쓰는 등의 특정활동이나 위험행동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에이즈의 감염위험을 높이는 것은 위험집단이 아니라 위험한 성행위 또는 위험한 행동이다. '위험집단' 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집단이 특별히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질병을 무릎쓰고도 쾌락을 즐기는 덜떨어진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감염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위험은 없다. 단지 이러한 '위험집단' 관념은 차별적인 생각을 강화시키는데 북무할 뿐이다. 오히려 감염을 더 확산시킬 가능성도 있다. 위험집단이라는 꼬리표는 그 집단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에게 위험을 전가시킴으로써 '위험집단' 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위험행동을 피해야겠다고 조심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

감염의 기회를 높이는 것이 안전하지 않은 행동이라기 보다 어떤 집단에 관한 문제라는 생각이 가지는 또 다른 문제점은, 그런생각이 문제를 도덕시키고 특히 에이즈가 특정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처벌이라는 관념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에이즈에 관한 보도를 보면 매춘부, 동성애자, 양성애자 또는 마약사용자가 에이즈에 걸리면 '자기 잘못' 이라고 표현하는 반면, 혈우병자, 수혈자, 모태감염으로 감염된 어린이는 '억울한 것' 으로 묘사된다.

사람들이 지각하는 에이즈의 위험과 에이즈에 대한 대응이 연관된다. 에이즈의 위험이 특수한 위험집단에 국한된 문제이고 이게 도덕과 연관되어 인식되어 지게 되면, 이들은 더욱 강압적으로 위험집단을 취급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강경한 도덕주의자들이 사실은 '안전한'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예방은 자신들이 '위험' 하다고 낙인찍은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바로 그것뿐이기 때문이다.

가장 위험한 집단은 바로 이들도.

1) 유행암에 'at risk'한 것으로 지적된 여성들에 대한 인터뷰에서 Gifford(1986)은 'at risk'된다는 것이 건강과 질병간의 경계 상태로 경험된다는 것을 발견(즉, 위험의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건강하지도 않고 아직 질병도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 같음)하였다. 이러한 여성들은 공통적으로 위험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묘사하는데 주관적인 경험과 감정에 의존하여 그들의 불안, 불확실성, 공포를 표현한다.



**:: 광고 \_ 2005 여름 동성애자인권캠프 도움을 주신 분들**

**이반시티**

[www.ivancity.com](http://www.ivancity.com)

**도모**

종로 이반 bar  
02\_3676\_9843

**U bar \_ the place for you**

종로 이반 bar  
02\_744\_7587  
[mintguy@hanmail.net](mailto:mintguy@hanmail.net)

**다함께**

반전, 반신자유주의 단체  
[www.alltogether.or.kr](http://www.alltogether.or.kr)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02\_704\_6744  
[seoul.kdip.org](http://seoul.kdip.org)

**:: 조별선택토론 발제문**

**동성애자 결혼과 입양 \_ 흡산이반 '안젤라' / 이반한양 '엽근'**

4학년 1학기가 무슨 대단한 벼슬이라도 되는 것처럼 나는 지난 한 학기를 정신 없이 바쁘게 보냈다. 쏟아지는 과제와 끝나지 않는 시험은 자취를 하는 나의 몸과 마음을 급속도로 지치게 하였고 심지어는 웃는 방법 까지도 잊게 하였다. 그런 와중에 간혹 여유가 생겨 침대에 '털석' 소리가 날 정도로 몸을 누이면 천장 한 가득 가족들의 얼굴이 그려진다. 피곤한 나의 심신이 쉴 수 있는 유일한 울타리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 다정한 울타리가 눈물이 나도 그리웠었다.

어머니에게 결혼을 하고 가정을 꼭 이루며 살아야 하느냐고 물어 보았다. 어머니께서는 '꼭'이라는 단어에는 찬성하지 않지만 가정이 한 인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만은 분명하다며 그것을 바탕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였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 숨쉴 수 있고 그 속에서 자아를 찾아간다. 그러나 관계의 형성은 우리에게 수많은 감정을 자아내고 심신을 지치게 만든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정된 보금 자리를 필요로 하고 그 속에서 서로 위로 받고 위로 해 주면서 살아가고자 한다. 그것이 가족이고 가정이다. 이해타산으로 가득한 현실의 삭막함 속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누며 서로를 감싸 안아줄 수 있는 든든한 'my team'인 것이다. 어떻게 보면 가정은 현실 속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이상세계인지도 모른다.

가정이 인간의 삶에 얼마나 소중한 의미인지 장황하게 설명한 것 같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기본적인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반의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다.

우리 사회는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를 구분하였고 동성애자의 가치를 폄하시켰다.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비판 받아야 할 존재들에게 같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려 하지 않는다. 왜 이런 사회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나 그 중심에는 언제나 동성애자도 이성애자와 다르지 않은 인간이며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함께 누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 그 누가 비판을 할 수 있으며, 사랑으로 맺어지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그 누가 돌을 던질 수 있는 것일까. 삭막한 현실 속에서 삶에 대한 따사로움을 전해줄 수 있는 가정이라는 유일한 가치를 동성을 사랑하였다는 이유로 빼앗을 권리가 있는 것인가. 그 누가 그런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인가.

모든 사람은 나름의 방식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이 허용되어야 한다. 이성애자의 가정도 동성애자의 가정도 모두 사랑으로 엮인 소중한 공동체이다. 결코 다르지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

행복한 가정을 꾸려 잘 살기를 축복해 주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예쁜 옷을 입고 웃는 얼굴로 결혼식장을 찾고 있다. 그리고 소중한 인연이 닿아 만난 두 사람은 우리를 축복해 달라며 초청장을 보낸다. 동성애자들도 이런 축복 속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게 인정을 받고 가정을 꾸리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이 작은 소망 하나를 이루기 위해 하나하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 커밍아웃 1 \_ 친구사이 '철민'

요즘 한창 화제를 일으키며 방영되고 있는 '안녕 프란체스카'란 시트콤에서 간혹 게이캐릭터로 분한 건이 "한국의 게이들도 벽장문을 나와야 해." 라고 외쳐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었다.

벽장문을 나오는 것, 즉 사회 통념이나 이성애중심주의의 사회에 대고 자신이 성적 소수자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커밍아웃이라는 행위이다.

우리 나라에서 동성애자 인권운동이 발을 내딛기 시작할 무렵 몇 명의 활동가들이 방송 매체나 지면 등을 통해 커밍아웃한 일이 있었으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었고 아, 우리나라에도 동성애자가 있구나. 라는 걸 인식시키게 한 건 뭐니뭐니 해도 텔런트 홍석천 씨의 커밍아웃일 것이다. 그 뒤로도 꽤 시간이 흘렀는데 홍석천 씨 이후에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걸 보면 우리나라에서 커밍아웃의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미국에서는 남성동성애자 여러 명이 이성애자들의 삶의 패턴을 변화하게 해 준다는 컨셉의 '퀴어아이' 라는 프로가 기획될 정도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커밍아웃은 동성애자, 성적 소수자들의 또 하나의 굴레인가? 아님 꼭 해야만 하는 의무인가? 커밍아웃에 대한 오해 한 가지. 대부분의 성적소수자들은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밝히는 것을 커밍아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일부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깨닫고 인정하는 일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면서 일차적인 커밍아웃이다.

생각해보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 어느 교육을 통해서도 우리는 스스로의 성적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집단이나 교과서에서 성적 소수자들은 '없는' 존재였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깨닫고 인정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상담 전화를 걸어온다. "제가 동성애자가 맞나요?" 많은 대화가 오고 간 후에도 결국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분들도 계시다. 사실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모든 제도나 혜택이 이성애자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혜택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싶지 않은 건 어쩌면 생의 본능인지도 모른다.

심지어 섹스까지도 가능하다. 난 동성이랑 섹스는 가끔 해. 하지만 난 동성애자는 아니야. 물론 가능한 일이고 참견할 문제도 아닐지 모른다.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남의 아랫도리까지 간섭하려고 들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하는 동성 간의 섹스가 즐거울 수 있을까?

자꾸 섹스 얘기만 해서 좀 뻘뻘한데, 섹스는 일회용이든 두 사람의 사랑의 확인이든 그 행위를 하는 두 사람이 기쁨과 즐거움을 창출하기 위한 동작이다. 하지만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의 그 어쩡쩡한 배설이 유쾌할 리 만무다.

자신이 스스로 성 정체성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면 그 후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친구나 가족, 직장 동료들에게 말하든 아님 텔레비전 등의 매체를 통해 만천하에 고할 수도 있는 노릇.

주위의 경험에 귀를 기울여 보자. 어떤 친구는 커밍아웃의 이런 과정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이전보다 훨씬

밝은 삶을 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경우도 있다.

어쨌든 자기 자신에 대해 타인에게 말하고 인정받고 싶은 건 사람들의 본능이자 권리일지 모른다. 그래서 혹시 타인 혹은 가족, 친구 등에게 커밍아웃을 하려고 맘 먹고 계시다면 준비를 하고 행하시라고 권하고 싶다.

대다수의 친구들이 커밍아웃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커밍아웃은 한번 말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애들아, 나 게이야." 혹은 "엄마, 저 게이예요 인정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어 그래, 힘들었겠구나, 진작 말하지." 라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면 정말이지 행복한 일이겠지만 이런 환상 같은 이야기라는 말씀. 커밍아웃은 오랜 시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 이다. 특히 가족에게 행하는 경우는 길게 십년에 걸쳐 결국 인정받았다는 친구도 있다.

정답은 없다. 누가 우리에게 성적소수자로 잘 사는 법을 알려 준 적도 물론 없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먼저 커밍아웃한 친구들의 사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방법을 물어보자. 그리고 커밍아웃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서로 이야기하다보면 좁혀지는 논제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커밍아웃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철저히 준비하자. 그리고 행복해지자. 난 소중한니까~^^

### 커밍아웃 2 \_ 흡산이반 '교진' 별첨으로 첨부합니다.

지금 MBC 뉴스투데이 보도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가 구성되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후 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활동의 풍성함을 가져다주는 모금에 캠프 참가자분들의  
적극적인  
후원 모금을 부탁드립니다.



**‘어느 레즈비언 노동자의 하루’ 동성애자 노동권 \_ 동성애자인권연대 회원 ‘유결’**

직장에서 게이다가 작동한다. 아무래도 저 사람. 나와 같은 부류다. 어떻게 접근할지 고민한다. 티지넷 아세요? 라고 물어볼까? 안되지. 네이버에 티지넷 치면 다 나오는데.. 아니라면 곤란해져.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서든 이런 경험을 가져본 사람들 많을테지. 그런데 왜 말하지 못하지? 혹시나 그 사람이 아니어서 본의 아니게 아웃팅 당하게되는 것이 두려운 거다. 회사에서 내가 레즈비언인게 소문이라도 나면? 청년실업 50만의 대열에 합류하게 될지도 모른다. 또는 인사고과에 남아서 곤란해질지도 모른다. 에이.. 그냥 말하지 말자. 혹시 이반빠에서라도 마주치게 된다면 물어봐야지.

면접을 보게 됐다. 친구들은 나에게 온몸으로 커밍아웃하는 인간이라고 하는데, 면접보러 갔다가 그러면 낭패가 아닌가 말이다. 면접을 대비해서 자르지 않고 적당히 길게 둔 머리. 먼지가 쌓여있는 저 화장품을 들고 얼굴에 파우더 칠을 한다. 립스틱을 바른다. 예휴.. 그래도 조금은 낫겠지.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어본다. 담배와 술에 젖어서 그런지 그렇잖아도 낮은 톤의 내 목소리는 내가 다 한숨이 나온다. 면접을 앞두고는 늘, 여성스러운 외모가 부럽다.

그런데 내가 왜 이래야하나 답답하다. 생긴대로 살고 싶을 뿐인데 세상은 그러지 말란다.

스물일곱의 여성. 평범하게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직장에 다니고 싶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여자라는 이유로, 외모가 일반적인 여성과 다르다는 이유로 일하는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유로 걸리적 거리는 게 너무 많다. 나에겐 일할 권리가 있다. 내가 하고싶은 일을 성적지향과 외모의 이유로 차별받을 이유 따위는 없다. 나는 그나마 양호한 편이라고, 트랜스젠더와 HIV 감염인들에 비해 숨길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안도하며 숨어살고싶지 않다.

**법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

-동성 간 성폭행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캠프준비단 '서현' · 핑크트라이앵글 '득이'

몇 년 전부터 '동성'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인지 이전의 동성애를 가지고 논란거리의 대상으로 삼고, 그들만의 색안경으로 낙인찍기 일쑤였는데, 현재 그런 편견은 조금은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억압과 차별이다.

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직장도 마음 편히 다니지 못하고, 아웃팅의 두려움으로 늘 마음 졸여야 하고, 심한 경우는 커뮤니티 안에서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베일 속에 가려진 우리들로 지내는 것도 종종 있는 일이다.

사회가 밀어내어 낭떠러지 끝에 내몰린 우리들은 시간이 지나 조금은 안정과 신뢰를 사고 답답한 공간에서 서로의 고민거리를 털어놓으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 만약 우리에게 그토록 희망적이고 삶의 의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 갈 수 있게 만드는 동료 혹은, 어떤 목적에서인지는 몰라도 평화를 깨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일까? 평화를 깨는 문제는 성 소수자뿐만이 아니라, 이성애자들도 포함되는 문제이다. 여기서 말하는 문제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성폭력'이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끔찍한 범행을 말한다.

[여기서 잠시 우선 성희롱과 성폭력에 정의에 대해 알아보자. 이 두 가지는 성폭력으로 통합되는데 이는 강간은 물론 성적희롱, 성추행, 성기노출, 음란전화, 음란통신을 성매개로 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말하며 간단히 말하자면 상대방의 행동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성적폭행을 당했을 경우를 말한다.]

요즘 직장 · 교내 성폭력이 점점 증가하는 덕분에 성폭력에 대한 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인지 사람들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나날이 높아지는 듯 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교육에서 동성 간 성폭력에 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동성 간 성폭력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지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사례 하나를 들어보자.

[남고를 다녔던 K군은 고등학교 2학년 시절 쉬는 시간마다 약 8명의 아이들에게 붙잡혀 섹스체위를 연상시키는 자세로 성폭력을 당했다. 처음에는 장난이려니 생각했지만 매 쉬는 시간마다 이어지는 괴롭힘과 반항할 경우에는 신체폭력으로 까지 이어지자 K군은 담임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담임선생님은 K군에게 □누가 애들 유혹하래?□라는 단 한마디만을 남기셨다. K군은 황당함과 허무함으로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그 상태로 약 5개월간을 지냈고 그는 고2때의 기억을 고등학교 시절 중 가장 잊고 싶은 기억이라고 말했다.]

위 사례는 남고에서 일어난 일이다. 과연 이와 똑같은 일이 교내 남녀에게서 일어났다면 어땠을까? 아마 □



교내 학생들 간 성희롱 학교에서 목살□ 이란 제목으로 신문은 물론이고 모든 매스컴을 화려하게 장식했을 것이다. 하지만 위 사례는 그러지 못했다. 엄연히 성폭력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동성간이고 친구들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담임선생님은 장난스럽게 넘기셨고, 그 학생들도 스스로 성폭력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행했다. 이것은 곧 무지함이 폭행을 만드는 것이다.

사실 이 사례는 성 소수자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사회와 사람들의 무지함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4년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된 동성 강간 사건을 계기로,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고 숨겨진 사건들이 하나 둘씩 밝혀지기 시작했다. 군대 내 성폭행, 10대들 간 성폭행, 금품 갈취를 위한 범행 등 동성 간 성폭행의 배경은 가지각색이다. 이런 사건들을 전달하는 매체들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특히 10대들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에 경우, 음란물(일명 야동)을 보고 호기심으로 주변 친구들을 유혹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 언론은 음란물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방치해둔 사이트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물 제작자만을 비난하고 성 소수자들을 들먹이기만 한다. 언론의 상황도 이렇다보니 정부는 오죽이나 하겠는가.

군대 내 성폭행 사건의 경우 정부의 입장은 사건의 주를 이룬 이성애자들을 비난하지 않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에 급급했다. 하지만 만약 동성애자들 위주의 사건이었다면 정부의 반응은? 비난은 물론 이거니와 아마 사건 자체가 공개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동성 간 성폭력은 성 소수자만의 문제로 여기고 있는 실정에서, 피해자들은 점점 늘어가고만 있다. 국방부에서 부대 내 성범죄 척결을 위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성추행 범을 처벌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워놓고도 성범죄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한 사례는 2001년 이후 3건에 불과했고, 특히 불기소처분을 받은 성범죄자가 2000년 72.7%, 2001년 78.9%, 2002년 83.3%등으로 나타나 군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조차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침이 없는데, 군 외에서는 더 심할 것이다. 성적 수치심이나 사회의 시선들 때문에 마음 편히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혼자 끔찍한 피해자들은 신고하기 꺼려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동성 간 성폭력이나 레즈비언에 대한 이성애자 남성의 성폭력 등과 같은 사건이 세간에 알려질 때, 아웃팅의 위험이 높다는 것도 성 소수자들이 신고를 주저하는 이유지만, 신고 과정에서 대부분의 경찰들이 보이는 동성애 혐오적인 태도 역시 피해자들을 움츠러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오히려 이런 호모포비아적 태도를 보이는 수사관들의 뼈뺀 시선이 오히려 범위를 줄일 것이 아니라 더 부추기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을 감수하고 조사에 임할 수 있다. 가해자를 고소를 할 수만 있다면 말이다. 우리 나라 형법은 강간죄의 피해자를 부녀자(여성)로 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 간 강간일 경우 피해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강간죄는 성립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또 여성 간 강간일 경우에도 성기 삽입 있었는지에 따라 강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여성 가해자는 단독범이 될 수 없고, 간접정범으로 취급 받게 된다. 이는 사실상 이성애자 사이에서만 강간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단정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피해자가 아웃팅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해자를 고소, 재판정에 선다 해도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3년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강간죄가 아니라 2년 이하의 강제추행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렇듯 지금 우리사회의 문제는 동성 간 성폭력에 대한 무지함과 사회의 외면, 그리고 현행법상의 문제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문제가 아닌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나에게 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내 주변의 누군가가 겪었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론에서 한번씩 터뜨려 주는 편향된 의견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는 우리만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성 간 성범죄는 '동성애자다, 이성애자다'를 떠나 사회 구성원들의 포괄적인 문제이며, 동성 간 성폭행이던, 동성 성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어 놓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는 법 조항을 필히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와 경찰서, 법원 등의 범죄와 관련된 기관들을 대상으로 '동성'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야하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식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성 소수자이건 이성애자이건 동성 간 성범죄는 말 그대로 '범죄'이다. 피해자는 수치심으로, 이상한 시선으로 낙인찍힐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숨기지만 한다면, 피해자는 끊임없이 수많은 범죄에 노출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는 피해자이다.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으로 구분 지어 사건을 종결시킬지 결정하는 것은 어느 법 조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문제이다. 피해자들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하루빨리 상처받고 울고 있을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당신의 눈을 바꾸면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입만 다문다면 상처 난 곳이 덧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바꾸면 제2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성적 다양성 / 취향에 대한 차별 - 성신여대 '설탕'

사람을 좋아하는데에는 이유가 없는 거라고들 하지만 누군가에게 반한다는 건 그 사람의 어떠한 부분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키가 커서, 잘 생기고 이뻐서, 성격이 좋아서, 밥을 잘해서 등등 제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동하는 것이라 본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수다를 떨다보면 심중팔구 나오는 이야기는 연애나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흔히 하는 말로 '이상형' 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청자는 화자의 말에 맞장구를 치거나 손사래를 친다. 나도 그런 사람이 좋아, 어떻게 그런 사람을 좋아할 수 있어? 등의. 후자의 반응이 나올 경우 화자는 '내 마음이지!' 라고 받아치거나 '내 취향이 이상한가?' 하고 고민도 하게 된다. 물론 취향 문제야 어떻게 되었든 애정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태클 받을 일도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고 해서, 얼굴 잘 나고 착하고 돈 많고 귀엽고 멋진 사람들이 모두에게 통하는 이상형 취향은 될 수 없다. 내 마음을 자극하는 무언가가 다른 사람들과 무조건 똑같을 수만은 없다. 푸근한 인상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가 있는 기혼 이반을 연모하는 사람도 있고, 출산드라의 축복을 받지 못해 마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며 가슴털이 수북하거나 싸가지들 밥말아 먹은 삼식이 같은 성격의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다. 그건 두 말할 것도 없는 개인의 문제이고 개인의 취향이다.

그러나 간혹 그 사람의 취향을 문제 삼는 일이 발생하곤 하는데, 이것은 비단 이상형이니 좋아하는 사람이니 라는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당사자의 차림새나 말투 등을 잡고 늘어지는 경우도 있다. 어떻게 털 많은 사람을 좋아할 수 있니, 그런 싸가지의 어디가 좋니, 유부녀를 좋아하는 건 죄다, 재는 저 남자의 어디가 좋을까, 같은 여자가 봐도 저 여자는 좀 아니다- 등의 취향문제나,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품잡고 담배피는 레즈비언은 무조건 팬픽이반이라며 단정지어 버리는 경우, 화려한 원색의 의상에 센스있는 헤어스타일을 한 게이기가 있는 반면 복학생 이미지를 푹풀 날리는 게이도 있건만 마초의 모습을 보이는 후자의 게이는 인간적으로 부정해 버리는 경우, 친하게 어울려 노는 게이와 레즈비언들의 사이에 쉽게 끼어들지 못하는 (못하게 만들어버린) 트랜스 젠더, 불리해 지면 이성애자로 돌아갈 수 있는 박쥐같은 양성애자 라는 소리 등, 이 세계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았음직한 일이 아닐까 싶다.

취향의 사전적 정의는 '하고싶은 마음이 생기는 방향' 으로서 개인의 기호를 뜻하는 말이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싫으면 마는 거지 그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불평불만을 들어야 할 이유는 없다. 내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해서 범위를 저지르는 것도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것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하나는 거다. 취향 한 번 독특하다 라는 말이 어쩌면 당사자에게는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 것일까. 어떻게 여자(남자)가 여자(남자)를 좋아할 수 있나? 라는 이성애자들의 편견 섞인 발언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지.

세상에는 몇 십억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다. 그들은 모두 저마다의 취향과 개성, 다양성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다. 세상에 100%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나 할 수 있는 것일까. 그렇듯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살아가는 데에 좋아하고 하고 싶은 방향이 좀 더 '뵈다' 는 이유로 손가락질 받아야 할 이유도 타인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말했지만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다. 타인의 취향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기 보다는 좀 더 넓은 시야를 갖춰 살아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다. 물론 당사자도 자신의 기호가 다른 사람들과 조금 어긋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죽지 말아야 할 것이고

## 성적 다양성 / 취향에 대한 차별 - 연세대 컴퓨터 '난화'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아마도 사람마다 서로 다른 대답이 나올 것이다. 이처럼 성적인 취향만큼 우리 내부의 다양성을 잘 보여주는 것도 드물 것이다. 처음 이 쪽 사람들을 만나는 수줍고 떨린 데뷔 자리에서도 으레 어떤 스타일 좋아해요? 라는 질문은 빠지지 않기 마련이다. 다양하고도 넓은 '식' 의 세계를 들고 있노라면, 정말 식의 세계는 오묘하구나! 라는 말에 절로 고개를 끄덕여지게 된다. 흔히 우리는 이성애자들과 성적 취향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자신을 규정한다. 그러나 이 정의에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숨어 있다. 과연 우리의 취향은 단일하며, 이성애자들과 우리를 구분지을 만큼 확고한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두루뭉술하게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을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각자 서로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끌리는 것이다. 이반에 대해 무지한 일부 일반들이 우리들에게 보이는 적대감도 상당 부분은 우리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덮칠지 모른다는 순진한 착각에서 비롯된 것일지 모른다. 그럼 과연 우리는 이런 서로의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한국인들은 보통 '다르다' 는 의미를 표현할 때 '틀리다' 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많다. 이는 우리가 서로의 '다름' 에 대해서 얼마나 관용적이지 못하기를 보여주는 좋은 언어적 습관의 한 예가 될 것이다. 어쩌면 나와 다른 것에 대해 경계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인간의 본능일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암묵적인 가치 평가가 일반인들에게 자신들과 '다르다' 는 이유로 억압과 차별을 당하는 우리들 내부에도 있다는 사실은 우리 역시 우리의 취향과 정체성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만든다.

상식적인 말이지만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같은 사람은 없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외부 세계를 남과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개체성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취향이 다양하다는 것이 쉽게 수긍이 갈지도 모른다. 인간은 누구나 서로 다르기 마련이다. 우리도 인간인 이상 서로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선호를 보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성적 취향 역시 마찬가지이다. 물론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실제 생활에서 몸소 가슴으로 이해하며 생활하기란 쉽지 않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알지 못하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자기 자신의 행동을 곁엿당하는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편견 때문이다. 이런 우리들이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주요한 이유인 '다른 취향' 이라는 것으로 서로를 가른다면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가 동성을 사랑한다는 사실 한 가지조차 아직 사회적으로 용인받지 못한 마당에 우리의 다양한 성적 취향을 주장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생각해 보라. 우리의 다양성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개별적인 가치를 알리는 것이고, 그것과 우리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인정받도록 만드는 것은 별개의 일이 아닌 것이다. 궁극적으로 성적 취향을 고찰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내부의 다양성을 조망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라는 단순한 이분법적인 도식을 넘어서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현재 우리 내부의 차이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이를 하나의 에너지로 결집시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는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각자가 신중하고 사려 깊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취향에 의해서 서로 구분되지만 그것으로 인해 서로 소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크게는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바이섹슈얼 그리고 작게는 이반 커뮤니티의 사람들 모두는 서로 다른 문제를 가지며 살아간다. 하지만 이런 다름에 주목하고 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좀 더 우리들의 삶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랑할 때, 보다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닐까?



## 대중문화와 동성애자 - 동성애자인권연대 회원 '사유' / 캠프준비단 '승우'

최근 대중문화에서는 많은 동성애 아이콘이 등장하고 있다. 동성애를 주제로 다루는 것들은 아직도 많진 않지만 동성애 캐릭터가 드라마나 영화에 보조적으로 등장하고 광고에서도 그런 이미지들을 차용하고 있다. 예전에는 게이 캐릭터들이 희화화 되거나 실수를 유발하는 모습으로만 등장했지만 최근에는 나름대로 진지한 모습들을 그리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외국에서 제작되는 동성애를 주제로 한 드라마들이 케이블 TV 등을 통해 소개되기도 한다. Queer as folk가 한창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던 시절 그것을 보고 한국에 언제쯤 들어올 수 있을까 생각했던 때가 있었지만 의외로 빨리 한국에서 방영이 되고 또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기도 한 것은 한국사회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달라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본다.

문화분야에서 동성애는 훨씬 더 쉽게 표현되고 혹은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모든 것을 상품으로 만드는 시대에 동성애 또한 소비를 자극하는 상품으로 포장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대중매체는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조정하기도 하고 동성애자들을 정형화시키기도 한다. 우리는 대중매체들에 둘러싸여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최근의 MBC 뉴스투데이에서 보도했던 이반문화 확산이란 얼토당토않은 뉴스는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고스란히 방송 뉴스란 대중적이고 아주 영향력 있는 매체를 통해 드러냈다. 대중매체에서 다루어진다는 것은 이처럼 엄청난 영향력을 동반하게 된다. 그래서 좀 더 올바르게 동성애가 다루어지는 게 중요하다.

동성애가 다루어지고 있는 - 그게 편견을 수반하던 그렇지 않던 간에 - 대중문화의 모습들을 찾아보는 것은 우리가 대중문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할 것이다.

## 야오이

야오이란, 남성 사이의 동성 연애물이나 혹은 그것을 창작하고 즐기는 문화를 통칭하는 말이다. 본래는 일본어에서 온 말로 <야마나시(야마나시)>, <오치나시(오치나시)>, <이미나시(이미나시)>라는 [주제 없고], [소재 없고], [의미 없다]라는 세 단어의 머리글자를 딴 약어로 현재는 일부 여성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다. 기원은 1976년부터 연재된 타케미야 케이코의 '바람과 나무의 시' 로 탄탄한 시나리오로 아직까지 호평을 받고 있다.

요새 들어서의 야오이는 간단히 BL물(Boys love)이라고 불리고 있다. 젊은 여성층이나 일부 남성층에게까지도 많은 팬 을 보유하고 있는 야오이는 위에서 말한 주제, 소재, 의미가 없다는 뜻 덕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남성간의 성교가 거북하지 않다면- 그런 한 장르의 만화책이 되어버렸다고 할 수 있다.

야오이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타케미야 케이코의 '바람과 나무의 시' 를 보자면 이야기의 무대는 제3공화정 기아틀르의 기숙학교, 유럽문화계의 중심지인 파리와 그 외 스위스의 자연이 교차된다. 그때의 당시는 자본주의는 정상궤도에 진입해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과학기술분야도 마찬가지이며, 그런 물질적 기반위에서 지배 계급에 한해 역사상 가장 풍부한 문화가 꽃피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정신사적으로도 중세는 완전히 파산하고 그간의 신적 권위와 터부로 엄격히 제한되어있던 인간과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다양한 면모에 관심이 집중되던 시기이며 모든 철학과 예술은 그러한 관심에 대한 추구하고 표현으로 풍부해져가던 시기였다. 즉,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시대란 의미이다. 이 시대적인 온상을 보더라도 동성애적인 코드의 삼입과 부합은 굉장히 쉬웠으리라 본다. 과학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명백히 구분지음에 따라 신을 등지고 믿음을 잃은 자들의 황폐화된 정신세계가 계몽적이면서도 퇴폐적일 수 있었던 것이 이 시기의 모순적인 특징

이니까 말이다. 이와 같은 예를 보더라도 각각의 시대마다 동성애적인 모습은 어디서든지 찾아 볼 수 가 있었다. 단순히 동떨어진 대중문화의 한 가지 코드가 아닌,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우리와 근접한 코드로서의 야오이는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

## 게이패션

사람들이 말하는 말 중에 흔히 그런 말이 있다, '게이패션'. 게이패션이라고 말하자면 우선 첫 번째로 오른쪽에 홀로 있는 귀걸이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이것은 과거 서양의 동성애자들이 서로를 알아보거나 알리기 위한 방편으로 한쪽만 귀걸이를 한다면가 바지 뒷주머니에 손수건을 보이게끔 넣어두는 그런 일종의 표식이었다고 한다. 이성애자들은 모르는 경우도 많지만, 동성애자들끼리는 과거 이런 표식을 함으로 서로를 알아보고 사귀는데 이용 -한국의 경우에는 남산타워 위의 박카스 한 병과 장미꽃 한 송이정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걸 가지고 게이니 동성애자니 할 수는 없다. 왜냐면 멋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 말이다. 왼쪽만 하는 사람도 있고 오른쪽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할 텐데, 그런 모든 이들이 동성애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한 생각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지금에 와서는 오른쪽에 귀걸이를 하는 사람은 이미 거의 사라지고 없다. 뭐, 그러한 개념이 너무나 많이 알려져 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본격적으로 게이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라면, 걸리쉬한 스타일을 들 수 있다. 게이들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사실 남성복의 디자인보다는 여성복의 디자인에 쉽게 끌린다. 여성복의 디자인이 훨씬 화려하고 독특하기 때문이다, 이점은 게이들의 남다르고 화려한 취향에 부합-모두가 그렇진 않다-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본인의 경우엔 걸리쉬 스타일의 옷이 상당히 많다. 반대로 레즈비언의 경우엔 보이쉬 스타일을 선호하는 사람 많기도 하다. 게이들의 시선과 관심을 잡아끄는 대표적인 아이템으로 들어간 허리라인 이라거나, 조금 짧은 전체적인 옷의라인, 몸에 달라붙는 스판 제질을 짤 수 있는데 이것은 당당하고 특별한 게이들 에게 있어선 최고의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다.

게이들의 패션이 걸리쉬가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메트로섹슈얼로 넘어오게 된다. 메트로섹슈얼이란 '메트로(도시)' 와 '섹슈얼(호모섹슈얼 : 동성애적인)' 을 말한다. 즉, 남성동성애자(게이)같은 취향을 지녔지만 이성애자라는 뜻인데, 게이들은 멋 부리기와 꾸미는 것을 좋아하고 여성적인 면을 지녔다는 서구 문화의 믿음에 근거한다고 한다. 메트로섹슈얼은 비슷한 시기에 나온 웰빌 몸짱 트렌드와 부합이 되어 많은 곳에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 이에 따라 많은 스타들이 몸짱 반열에 등과 동시에 메트로섹슈얼을 지향하고 여러 게이들 또한 메트로섹슈얼에 몸을 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부 남다른 패션 감각을 지니고 있는 게이들은 에스닉과 보헤미안 스타일에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에스닉이란 '민속적'이란 의미로서 말 그대로 민속적이고 토속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고, 보헤미안이란 집시를 뜻하는데 유럽쪽에 흘러들어간 집시들이 주로 보헤미안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집시들을 보통 보헤미안이라고 부르며 그 스타일을 하면 집시스타일을 말하는 것이다. 이 두 스타일의 공통적인 전체적으로 흘러 내리는 느낌과 풍성한 느낌이 특징인데, 바람이 불면 필러거리는 매한가지인 듯하다. 이국적이며, 널널한 통이 활동성이 있고, 무엇보다 특이하다.



:: 2005 여름 동성애자 인권캠프 공동준비단 후기

준비단 동인연 \_ 서연

더운 날씨 속에서도 즐겁고 유익한 캠프를 만들기 위해 사무실에서 땀 흘리며 머리 맞대고 열분을 토한 결과 이를 앞으로 캠프가 다가갔네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캠프에 오시는 여러분들과 어울려서 동성애자 캠프를 통해 조금은 속 시원하고, 용기와 자유를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적중 시험 때문에 호의 참석도 저조해서 준비단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도 큼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좋은 표정 짓지 않고 후회없는 추억을 남기기 위해 고생하신 준비단 여러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즐길 일만 남았습니다~  
Let's Go Pride Party ~ !!

준비단 단국대핑크트라이앵글 \_ 옥

캠프의 준비가 어느덧 막바지에요 곧 캠프기도 하구요 2개월 정도 캠프 준비를 위해 참여하면서 부딪힌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장벽에 대한 도전감도 느낄 수 있었고, 좀 더 나아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었다는 생각. 그것들이 캠프 준비를 하면서 저에게 많은 힘을 주었던 것 같아요. 캠프를 위해서 제가 뭔가 크게 한 건 없지만, 호의에 참석하고 준비단에 들어 있다는 활동만으로도 이번 캠프는 저에게 참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캠프를 하면서 조금은 아쉬운 점도 있었고, 부족한 점들도 많았지만, 열심히 준비한 캠프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캠프 마지막까지 열심히 캠프 재밌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캠프 준비단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고. 우리모두 Pride Party에 흠뻑 빠져봅시다^^

준비단 HUFsameVan \_ 올리드

돌아봐 보면 지난 몇 년 간의 나의 여름과 겨울의 삶이란 캠프가 없었어 말할 수 없다. 더불어 항상 즐거운 캠프를 위해 고민해온 준비단 친구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 같다. 이들이 없었더라면 캠프는 더욱 아름다운 것이었지. 1회 처음 캠프 때 즐겁고 모험한 목적으로만 참가를 결심했지만 준비하는 기간과 강연 준비, 캠프에서의 여러 토론과 강연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극으로 끌어내면서 어느덧 나는 나름대로 캠프의 참가하는 의미를 재구성한 것 같다. 다섯 번째까지 다섯 번째까지 기억도 안날 정도. 이제 끝낼 만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지만 새로운 이야기, 여러 가지 생각들의 공유의 장이 될 Party에는 장벽이 없다. 7월 대 사기를 마치고 캠프에 합류했지만 여타의 사정에 의해 준비단 여러분들께 오지 못해 고백을 드린 것 같다. 이 지면을 빌려 캠프를 준비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더불어 이번 캠프가 마지막으로 남겨진 나의 사기에 다시금 활력을 줄 것이라는 흥분과 기대와 함께. '한걸음 한걸음씩 내딛는 우리의 향한 걸음이 아름다운 세상 만드는 한층 거름 되는 것'

준비단 한국도대 HUFsameVan \_ 교진

에고고~ 후기입니다. 처음참가하는 동인연 캠프이자 처음으로랑이랑때 낯설어서 별로일도 못하던 때가 생각나는군요^^ 비록 캠프전날이지만 어쨌든 막상 다녀올때보다 준비하고 재향할때가 더 즐겁다던데~ 준비단분들 모두 수고하셨구요 덕분에 호의참가하는것도 참 즐거웠습니다. 호의도 맨날 늦은 주저에 이연할까가 참 웃기긴합니다만 ㅋㅋ 마지막까지 후기도 못하고 발제문도 늦고... ㅋㅋ 내년캠프도 참가할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엔 이연모습 안보일수있을... (2번 제자신을 바꿀수있을까??) 아울러 열심히 준비한만큼 결과도 좋아졌지요. 준비단 여러분들이나 캠프에 참가하는 모든 참가자들이 "2005년 인권캠프 참 즐거웠지" 라는말 할수있도록, 멋진캠프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올로이신분들은 모두 탈출하시길~ 꼭 전 일하는곳에있는 이연은 손님에게나 바깥사람입니다 ^^)

준비단 단국대 핑크트라이앵글 \_ 은사미

학교 친구 손잡고 처음 와서 준비단이라니~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식으로 캠프 참여하지 못하고 달랑 말은 프로그래밍 하러 들어 참 씁쓸합니다. 이번 캠프 2박 3일 동안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어가지구요~ 전 날림 준비단이었지만 다른 분들 정말 많이 고생해서 열린 캠프만큼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를 통해 무사히 캠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꾸벅.

준비단 중대비인보우교회 \_ 물고기

기상청의 호안장담에도 불구하고 금년 여름은 김찍하게 더웠습니다. 작은 옥탑방에서 선물을 복사시켜서 모두들 열심히 준비했지요. 캠프를 이틀 앞둔 지금, 그저 모두가 즐겁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캠프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고민 끝에 캠프에 참가하신 분들, 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후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준비하고 함께 고생한 우리 준비단들 수고했어요!! 준비단 한양대비인보우동인연 \_ 업군

동인연을 알게 되고 동인연후반으로 생활한지 석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포럼과 쿠퍼 축제, 그리고 지금 2005 동성애자 인권캠프 준비단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숲' 선배들에게 견본받은 업서에 채워져 있던 글입니다. 예전의 제가 머릿속에서만 꿈꿔왔던, 여기 속에서만 그려왔던 이러한 활동들이 지금의 저에게 이미 현실이 되었고 상에 용기를 주는 강점이 되었습니다. 나무가 나무에게 더불어 숲이 되어 자라자고 이야기할 때는 그러한 강점들과 생각들을 캠프에서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처음으로 맞는 캠프에서 준비단을 하면서 함께한 준비단 여러분들과 후원해주신 많은 분들을 통해 오랫동안 잊어졌던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타의 사정들을 함께 고민하고 끌어내면서 어떤 면에서는 질이 떨어지고 미숙함에 걱정되기도 하지만 이번 캠프가 Pride Party가 될 것임은 맘속 깊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유쾌한 그리고 당당한 캠프를 마치고 즐겁게 뒷물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준비단 서울대 유이즈 \_ 두영

날 더운데 준비 하느라 다들 너무 수고 하셨어요. 특히 이번 이런 행사를 주관하시는 동인연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세요. 모두들 이 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길요. 앞으로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

준비단 연세대 컴튜어 \_ 오난희

산정하세요 캠프 준비단 오난희입니다. 그 동안 더운 날씨에 많은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준비 회의 때도 제대로 참석하지 못해 죄송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 알게 되고 또 친절한 모습 볼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사실 행사를 꾸려나가고 준비하시는 예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동안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캠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캠프 위해 마지막까지 파이팅!!!

준비단 동인연 \_ 달팽

3번째 캠프를 준비해 봅니다. 이번 캠프라는 공간에서 사람들을 만나 서로가 가진 아픔과 기쁨을 쏟아내는 것이 이번 익숙해 질때도 되었지만 오지러 이번 설레임과 기대를 가지게 만드는 것은 캠프가 가진 초대비 매력의 아인이 합니다. 올해는 13개 단체가 모여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엔 꼭 사무실에 들여놓겠다는 '거짓말' 을 쉽게 속이고... 1시간이면 끝나겠던 호의 약속을 변변히 여기면서도 호의에 집중하는 모습. 준비단 여러분씩 일러부~~~~ 쉽지 않은 이 행보에 함께 걸어준 준비단 분들에게 감동의 눈물과 함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두어달간 준비한 이번 캠프는 헌빈을 위해 제일 먼저 만든 예이코를 수줍게 내미는 삼순이처럼. 헌빈코의 행복한 밤을 맞이하며 깨지기 싫어할 선철하는 삼순이처럼 캠프를 준비했습니다. 맘껏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마치, 서방이 깨어는 시간에 건물 옥상 꼭대기에 올라 수줍은 듯 자신의 속내를 밝히는 '설레임으로' 이제 숨쉬듯 지켜주고 싶습니다.

준비단 단국대 핑크트라이앵글 \_ 득

캠프 준비 시작할 때는 언제쯤 캠프를 가려야 상의했었는데 어느새 두 달이 지나고 다 같이 캠프를 떠날게 됐네요. 모두들 수고 많으셨구요~ 준비 열심히 한만큼 열심히 즐기자구요! 준비단 분들 그리고 같이 캠프 떠나는 분들 모두 '사랑해요'♡

이 뜨거운 여름을 함께 보낸 준비단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 2005 여름 동성애자 인권캠프 공동준비단 평가설문지

다음은 이번 캠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참가자분들의 평가, 만족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잘 읽어보시고 솔직하게 모든 문항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자신의 성정체성은?

- 1. 동성애자 (게이/레즈비언) 2. 이성애자 (남성/여성) 3. 트랜스젠더(mtf/ftm)
- 4. 바이섹슈얼(남성/여성) 5. 기타

2. 본 캠프 개최 장소의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만족		보통		매우 불만
1	2	3	4	5

3. 본 캠프의 기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적당하다 2. 짧아서 아쉽다 3. 길다는 느낌이다. 4. 잘 모르겠다.

4. 본 캠프의 프로그램 중 가장 좋았다고 생각되는 것을 2개를 골라주시고,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 1. 매직샵 2. 선택강연 3. 안녕? 이반체스카! 4. 춤배우기 5. 인권감수성프로그램
- 6. 골든벨/레크레이션 7. 전체강연 8. 조별선택토론 9. 촌극

선택하신 이유는? \_\_\_\_\_

\_\_\_\_\_

5. 본 캠프가 자신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참가 전과 참가 후의 변화가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_\_\_\_\_

\_\_\_\_\_

6. 본 캠프의 내용 중 미흡했거나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_\_\_\_\_

\_\_\_\_\_

\_\_\_\_\_